



<b>코스피</b> 2527.49 (+30.68)	<b>코스닥</b> 724.24 (+12.63)
<b>금리</b> (미국 3년) 2.626 (-0.049)	<b>환율</b> (원·달러) 1455.20 (-6.00) (16일)



공짜 웹툰 보러다  
도박 빠진다  
불법웹툰 단속 시급  
02

# 기준금리 年3% 동결 고환율에 '신중 모드'

##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정치적 불확실성 속 환율 주시  
물가 안정세에도 인하 속도조절  
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은 미지수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 언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

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00%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까지 13차례 연 3.50%로 동결한 뒤 10월 3.25%, 11월 3.00%로 각각 0.25%포인트(p) 인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환율에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진 만큼 얼마나 해소될지 지켜보고 인하 속도를 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3월 1402.9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기준 1460.2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한달 새 57.3원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1월에는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렸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정치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원화 가치가 하락했고,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기 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돼 정상화되는 것과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정부 정책 영향까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물가 수준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실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 ▲8월 2.0% ▲9월 1.6% ▲10월 1.3% ▲11월 1.5% ▲12월 1.9%로 목표치

(2.0%)를 밑돌고 있다.  
한은은 올해 연 평균 물가수준을 1.9%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이 1430원대 수준에 머물 경우 물가는 0.05%p 올라 1.95%가 되고, 1470원대로 오르면 물가가 0.15%p 올라 2.05%가 된다.  
이 총재는 “이미 물가는 목표치(2%)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환율 변동을 검토해 (인하)속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금리 동결로 내수(소비+투자)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다. 신용카드 대란 사태로 소비가 줄었던 2003년(-3.1%)

이후 21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까지는 경제가 약화된 만큼 소비가 둔화되지 않았는데, 계엄사태 이후 1월 초까지 신용카드 사용량 등 소비가 예상보다 많이 낮아졌다”며 “높아진 환율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은은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경제성장률도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의 결론에서 “앞으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이 작년 11월 전망치(2.2%·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尹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스1

# 친환경차 바람에 작년 車 수출 '역대 2위'

年수출액 2년 연속 700억弗 돌파  
하이브리드차 높은 성장세 영향

자동차 연간 수출액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었다. 글로벌 전기차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차의 높은 성장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 수출액은 총 70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709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대비 45.8% 급성장한 113억달러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

작년 12월 수출액은 11월 말 폭설에 따른 안전점검, 부품공장 피해와 전기차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3% 감소한 60억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수출 물량은 4년 연속 증가한 25만2000대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시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년은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녹록지 않은 한해였다”며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 혁신 방안’을 추진하며 산업활력 향상을 도모했고, 완성차업체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신모델 출시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수출실적 7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2년 연속 400만대를 돌파한 413만대(전년 동기 대비 -2.7%)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 순위는 아반떼(28.7만대), 트래

스(28.5만대), 코나(24.9만대), 스포티지(21.1만대), 트레일블레이저(20.8만대) 순이다. 생산 차량의 67%(278만대)는 해외로 수출됐다.  
작년 국내 판매는 163만대(국산 134만대, 수입 28만대)로 소비 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다만,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65만대를 기록하며 신규 판매차량 10대 중 4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이브리드차가 전년 대비 32%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며 친환경차 중 76%, 전체 국내 판매 차량 중 30%를 차지하며 친환경차 전환 기조를 이어나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구속영장 청구 시점 미뤄져

‘공수처 체포영장 위법’ 고수  
48시간 체포 시한 일시 정지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이 16일 열렸다.

이로인해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이 정지되면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15일)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체

포적부심은 이날 오후 5시에 열렸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에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메트로 한줄뉴스



▲尹측 “질서 회복 필요 없었는데 탄핵... 정권 탈취 목적”  
▲국회측 “尹은 헌법의 적... 신속히 만장일치 파면해달라”  
/사진 뉴스1

▲野 “명태균, 유튜버 부탁으로 여의도연구원 인사 청탁”  
▲계엄날 경찰 “누구 체포?”... 방첩사 “이재명·한동훈”

▲정부 “北비핵화 일치된 목표... 美신정부 정책검토 과정서 공조”  
▲노무현 탄핵 방어 조대현,尹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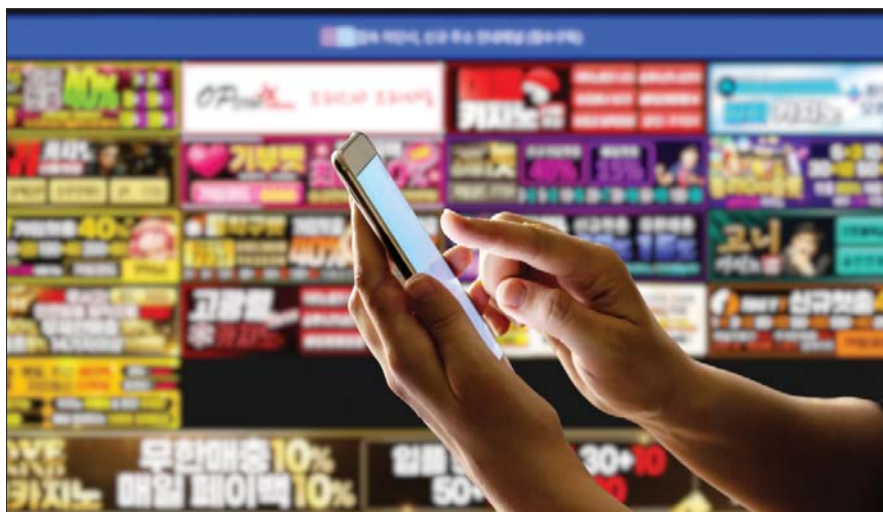
# 공짜웹툰 보려다 도박 빠진다... 불법웹툰 단속 대책 시급

콘진원,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  
불법웹툰 이용률 20% 4465억 피해  
배너 게시로 '불법도박' 끌어들여  
웹툰작가 저작권 침해 등도 심각  
방통위 단속인력 충원에 단속하고  
AI기반 모니터링 기술 등 의견도

불법웹툰 시장 규모가 500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사이트가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불법웹툰 사이트는 정식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 중이거나 연재 완료한 웹툰과 웹소설, 만화를 무단으로 복사해 게시하는 곳을 뜻한다. 사이트에 따라서는 영화와 OTT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까지 게시한다.

16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를 발간하고, 국내 웹툰산업 규모가 2조 189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이래 6년간 지속 성장세를 보였다.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는 불법웹툰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록 불법웹툰 사이트의 주 수익원인 불법 도박 시장도 함께 성장한다. /김서현 기자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로 전체 산업의 4465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는 고려되지 않은 수준이다.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IT업계 관계자들은 작가들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불법웹툰 사이트가 불법 온라인 도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2차

3차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다. 불법웹툰은 사실 온라인 도박 배너를 보게 만들기 위한 미끼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적발된 불법 콘텐츠 사이트 누누티비의 운영자가 벌어들인 수익은 333억 원에 달하는데 해당 수익은 모두 불법 행위와 관련한 배너 게시를 통해 이뤄졌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

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 또한 당시 주범이 얻은 수익은 9억 5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억 원대의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있어 누누티비, 밤토끼 등 최대 사이트 폐쇄는 경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제2, 제3의 최대 사이트를 키울 기회가 된다. 새로운 사이트가 성장하면 또다시 도박 광고 배너는 빈자리 없이 사이트를 빼곡하게 채운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웹툰업계에는 저작권 침해를, 청소년 등에게는 불법 도박의 창구가 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는 데에는 현재 국내 IP를 이용한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 한계가 지목된다.

방심위는 매주 2차례씩 차단 대상을 심의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모든 불법 사이트를 확인하고 차단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국내법을 피하고 법인세를 축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한 해외 서버 영업과 적발시 자동으로 변환되는 URL 체계 또한 단속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적발과 원천 차단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불법 온라인 도박 신고는 총 3만9082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한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에서는 온라인 도박 규모(이용자 기준)는 37조5059억원으로 나타났고 그 중 불법 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도박 중독 치유 서비스를 받은 사람도 10만여명에 달했는데, 10대 이용자도 총 7880명이었다.

IT 업계 관계자들은 AI 기반 모니터링 기술의 도입이 불법웹툰 사이트 차단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AI는 사이트 생성 패턴과 불법 콘텐츠 특성을 학습해 운영을 신속히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3000만원대 전기 SUV' 中 BYD, 韓 상륙

BYD, 아토3 등 올해 3개 모델 판매  
삼천리EV 등 국내 6개 공식 딜러사와  
15개 전시장, 서비스센터 순차 오픈

중국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가 '가성비' 모델을 앞세워 한국 전기 승용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포비아(공포증)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BYD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출범식을 갖고 사업 전략과 신차 출시 계획을 공개했다. BYD코리아는 올해 3000만원대 초반의 소형 전기 SUV 아토3를 시작으로 전기 세단 '셀'(SEAL), '씨라이언 7'(Sealion 7) 등 3개 모델을 판매할 계획이다.

BYD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무리하게 판매량을 늘리기보다 고객 체험과 소통을 통해 제품을 알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BYD코리아는 DT네트웍스, 삼천리EV, 하모니오토모빌 등 6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주요 지역 및 도시에 15개 전시장과 11개 서비스센터를 순차 오픈한다.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중국 BYD 승용 브랜드 런칭 미디어 행사에서 류세양 아시아태평양 지역 BYD영업사업부 총경리가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BYD 영업을 책임지는 류세양 총경리는 "고객 편의 및 딜러 파트너사들의 건강한 성장에 가치를 두고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BYD 매장이 모든 인플루언서들이 반드시 한번쯤 방문해야 하는 곳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BYD 코리아가 국내 처음 선보이는 아토3는 2022년 출시 이래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100만대 이상 판매된 모델이다. BYD의 LFP 기반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해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21km다. 파노라믹 선루프, V2L 등 편의사양을 탑재했다. /양성운 기자 ysw@

가격은 트림별로 기본 모델은 3150만원, 상위 모델인 아토3 플러스는 3330만원이다.

정부 보조금을 적용하면 아토3의 실제 소비자 구매 가격은 2000만원대 후반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아토3와 경쟁할 국내 전기차는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과 기아 EV3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나 일렉트릭은 스탠다드 4142만원, 롱레인지 4566만원부터, 기아 EV3는 스탠다드 3995만원, 롱레인지 4415만원부터 시작한다. 정부 보조금을 받 아도 3000만원대를 형성해 아토3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양성운 기자 ysw@

## 설 연휴 문 여는 병원·약국 최대치 확보

당정 협의의, 외래진료 공백 해소  
2주간 '비상응급대응주간' 지정

의료대란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16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의료기관 외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최대치

를 확보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설 명절 응급의료 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설 연휴 전후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 동안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12월 1~7일 7.3명에서 12월30일~올해 1월5일 4주 만에 99.8명으로 13.7배 늘었다. 12월 23~27일 전국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일 일평균 1만8437명으로, 전주 대비 337명 늘었다. 증가한 환자 중 41%(1357명)가 독감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전국 응급실 413개 소에는 1대 1전담관을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이 기간 배후진료 수기도 추가 인 상하기로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소상공인 지원 집행과정 철저히 챙길 것"

최상목 권한대행, 소상공인 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지원책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직접 챙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기재부 등 각 부처가 용자부담 완화 지원을 비롯해 가맹점의 부당관행 단속 등에 나설 전망이다.

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 등을 통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논의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원 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기관이 합심해 집행과정을 철저히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올해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의 주요 내용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을 포함한 바 있다.

최대행은 또 현장의 집행 애로를 상시로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빠르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도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오늘·내일 중 尹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 1면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서 계속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는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이며, 체포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서울서 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기겠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도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을 요청했다. 오늘 보낼 예정"이라며 "체포적부심 결과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 이후 체포적부심사에 필요한 수사 관계자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당초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기에, 공수처의 영장 청구 시점은 이날로 예상됐었다.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체포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심사는 청구 다음날 이뤄지기에, 금요일인 17일 심사를 위해 이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신청으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도 미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에 수사 관계 자료를 접수하면, 서류가 돌아올 때까지 체포 기한은 정지된다. 체포 기한은 일 단위로 정지되며, 적부심 인용·기각 결정이 이날 중 이뤄져 기록이 반환되면 하루, 17일 반환되면 이틀이 체포기간에서 제외된다. 즉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17일이나 18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예진 기자 syj@

# 이창용 “정치 안정화 시급… 崔 대행 지지, 경제적 메시지”

〈한국은행 총재〉

## 한은 기준금리 동결

이 총재,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 전망 “연이은 탄핵시 대외 신뢰도 영향 금리인하보다 정치불안 해소 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로 이어져 환율을 끌어 올렸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커져 달러강세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회귀가 우려된다. 환율 움직임과 미국의 금리인하 추이 등을 점검하면서 한 번 쉬어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발언을 두고 왜 정치적 메시지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 정치적 불안이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쳐 경제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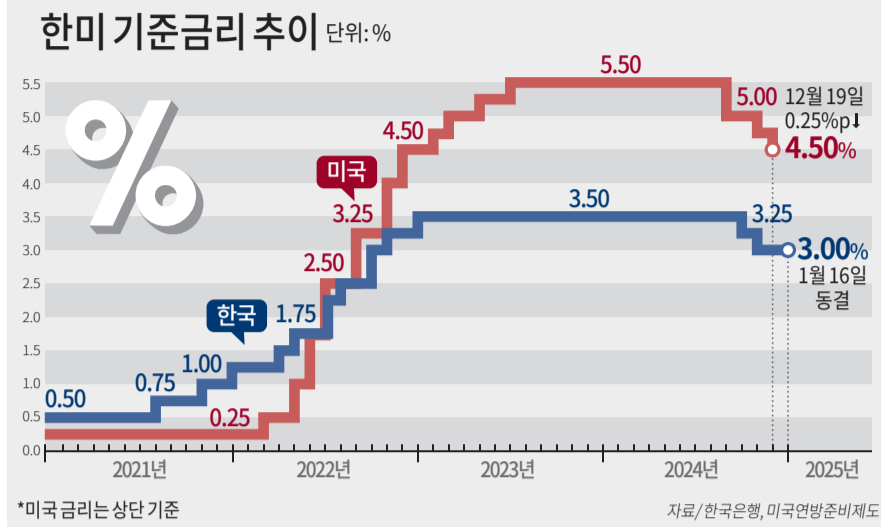
이 총재는 “신용평가기관의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를 안정시키려면 금리를 몇 퍼센트 낮추는 것보다 정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보다 경제적인 메시지는 없고,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라고 했다.

### ◆ 내달 성장을 재조정 시사

이 총재는 비상계엄·탄핵 사태 등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적 리스크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 전에 환율이 1400원이었다면 지금은 1470원이고, 이 중 50원이 전 세계 공통적인 달러 강세 영향이라면 기계적으로 나머지 20원이 정치적 이유가 된다”며 “다만 국민연환 해지 물량이 나왔고 한은도 시장 안정화 정



책을 취했기 때문에 계엄과 정치적 이유로 30원 정도 올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 환율은 정치 프로세스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환율에) 개입하고 조정해서 3, 4원 바꾸려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한다”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치적 이슈가 터져 20원, 30원 폭락 튀면 (정책 대응) 하는 사람도 힘 빠진다. 정치 프로세스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성장률도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

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기준 전망치인 2.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의 지지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도 커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이번 정치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에 주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판단하기 어렵고, 정치적 리스크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바뀔 것으로 보여 다음 달 성장률 발표 시 재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상황 고려하여 인하 시기 조정”  
이날 이 총재는 금리 결정을 두고 경

기를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인하했고, 금융통화위원회도 3개월 금리 전망(포워드 가이드)을 통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며 “금리인하 사이클에 들어선 만큼 경기를 보면서 (금리인하의) 조정 시기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소비·투자)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한은은 5억원을 은행에 연 1.5%의 금리로 지원한다. 은행은 지원금과 지원비율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다. 지난해 1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한 데 이어 한도를 14조원까지 늘린 것이다.

이 총재는 “금리는 워낙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많아 조심스럽게 조정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환율 등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며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만큼 한은이 경기를 무시하고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이복현 “가산금리 추이 면밀히 점검… 취약계층 맞춤형 대응”

## 서울 집값 3주연속 보험

매매수급지수 13주 연속 하락

##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금융사 대출운용계획 종합 점검 “지방경기 활성화 등 필요 자금 공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금리인하 기대와 요구가 높음에도 미국의 관세강화·재정적자·통화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인하시기가 지연됐다”며 “고금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부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기업이 종전 2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동결함으로 높은 이자율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했다.

이 원장은 연초 수립된 금융사들의 대출운용계획을 종합 점검해 금융권의

자금이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계대출이 안정적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서 실수요자와 지방경기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세심히 챙겨 민생안

정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

이 원장은 환율변동과 관련해서는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자금 공급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은행 단기 외화차입 비중은 19.7%로, 2008년 금융위기(73%)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금감원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묶여있는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에 풀릴 수 있도록, 부실 정리 실적이 미진한 금융사에 대해선 추가 충당금 적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부실채권 경·공매가 더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매각자와 수요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서울 지역의 매매가격이 3주 연속 보험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13주 연속 하락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험(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넷째 주(0.01%)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12월 마지막 주 꺾인 후 3주 연속 보험세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중랑구(-0.02%→-0.04%)가 면목·신내동, 도봉구(-0.02%→-0.04%)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용산구(0.04%→0.04%)는 산천·이촌동, 중구(0.01%→0.02%)는 신당동 주요단지, 광진구(0.03%→0.02%)는 광장·자양동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구로구(-0.02%→-0.04%)는 구로·개봉동, 동작구(-0.01%→-0.03%)는 사당·상도동 위주로 하락했다. 반면 서초구(0.03%→0.02%)는 잠원·반포동, 송파구(0.03%→0.04%)는 송파·잠실동 중소형규모, 강서구(0.01%→0.01%)는 염창·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신고가 경신 사례가 포착되기도 하지만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고 있다”며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단지별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전체 보험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 이재명, 5대 은행장 만난다… 상생금융안 이목집중

이 대표측 현장간담회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장을 불러모아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한다. 탄핵 국면에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 대표가 은행장을 만나면서 은행권의 추가 상생안이 발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 대표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후 4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은행권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엔 이한주 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우 우리은행장 강태영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과 조용병 은행연

합회 회장이 자리한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이 금융권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선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은행장들을 만나면서 금융권에선 더 많은 상생 방안을 이 대표가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평소에도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해오던 이 대표가 최근 경기침체에도 이자 장사로 좋은 실적을 거둔 은행권이 임금 인상 폭을 높이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따르자, 제1야당이 이 대표가 적극적인 상생금융안을 은행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조직쇄신·비은행 강화로 ‘명가 재건’ 속도 낸다”



## ④ 임종룡 회장

우리금융은 푸른 뱀의 해인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해 추락한 고객 신뢰를 되찾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과 주요 사업 및 자본적정성, 위험관리 역량 등 핵심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025년을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면서 신뢰 회복과 그룹 도약 기반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내부통제 혁신과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해 그룹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 ◆ 조직쇄신 드라이브

임종룡 회장은 올해 경영전략으로 내부통제 혁신과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연이은 금융사고로 흥역을 앓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강화해 고객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포석이다.

먼저 계좌 갈등 해소를 위해 임 회장은 지난해 연말 인선에서 1968년생인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선임했다. 시중은행장 가운데 가장 어리다.

우리은행은 19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돼 출범한 한빛은행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한일은행 출신인 정 행장의 임명 시기는 1995년이다. 현재 우리은행 본부 부서장과 지점장급들 중 다수가 1998년 이후 입행한 통합세대인 만큼 정 행장 이후에는 통합세대 출신 은행장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은 올해 초 계좌갈등의 종지부를 찍었다. 임 회장의 주도 아래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 한일은행의 퇴직직원 동우회가 양 은행 합병 26년 만에 ‘우리은행 동우회’로 통합했다.

우리금융은 그간 상업은행, 한일은행 간에 계좌갈등이 계속되면서 우리금융그룹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여러 차례 받았다.

우리은행으로 통합한 이후에도 퇴직 후 출신은행들이 각각 다른 동우회에



가입하는 관례가 이어지며 계좌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당시부터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기업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계좌의 상징으로 불리는 동우회 통합을 시급한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 왔다.

통합 동우회장 선임 등 후속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동우회 통합은 계좌갈등 해소의 첫걸음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 내부통제 혁신·신뢰 회복에 방점 계좌 갈등 해소, 동우회 통합 추진 젊은 리더십 발탁, 조직 문화 혁신

또한 내부통제 실패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해 연말 신임 CEO 인사에서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다.

우리금융그룹은 카드 대표로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실험을 단행했다. 우리금융이 그룹 주요 계열사인 카드사에 외부 출신을 대표로 선임한 건 처음이다.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는 1989년 삼성카드에 입사한 이래 30여 년간 카드 업계에 종사하며 마케팅, 고객관계관리(CRM), 리테일, 운영 등 주요 영역을

두루 거친 전문가다.

우리금융개피탈 대표에는 평화은행 출신 기동호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 문장을 기용했다. 우리금융 주요 자회사 CEO에 외부출신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지난 2019년 지주사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 CEO가 선임됐다. 정현옥 우리신용정보 대표다. 정 대표의 강한 추진력을 통해 채권 회수율을 개선하고 비주심 부문 성장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임 회장 취임 후 계좌갈등 종식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던 부분이다”라며 “향후 통합으로 인해 임직원간 융화를 통한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명가재건 위해 비은행 강화

우리금융은 탄탄한 ‘도약기반’을 확보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위상제고가 목표다.

올해 힘든 금융시장 환경에서 은행, 카드, 캐피탈, 증권 등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해 새로운 금융 영역으로의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포스증권을 인수해 우리투자증권으로 재출범시키는 등 비은행 계열사 분야를 강화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우리종합금융이 소

형 증권사 한국포스증권을 인수합병해 만들어졌다. 자기자본은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업계 18위권이다. 향후 5년 안에 업계 10위권 증권사로 도약하고, 10년 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획득하겠다는 게 목표다. 다만 도약을 위한 관문이 많다.

우투증권은 지난해 7월 말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 취득 후 출범과 함께 투자매매업 본인가 신청을 진행하고 있으나, 심사 지연 등 이유로 5개월째 본인가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금융(IB) 관련 업무를 아직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증권사가 주식거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회원사 등록이 필요한데 회원사 등록마저 지연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동양생명과의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 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명보험사 가운데 수입보험료 기준 6위로 ABL생명은 업계 9위로 인수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자산 50조원 규모의 6위권 생보사를 자회사로 갖게 된다.

### 비은행 계열사, 외부 전문가 영입 여성 CEO 발탁으로 리더십 다변화 포스증권 인수, 증권 사업 본격화

하지만 금감원 검사 결과의 후속으로 발표될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부여받으면 추진 중인 보험사 인수가 지연·발발될 수 있다. 지주사가 금융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면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임 회장은 증권사 출범을 실현한 데 이어, 보험사 인수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숙원사업’을 이루고 종합금융지주 청사진을 완성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임 회장은 “새로운 금융 영역으로의 도전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미래성장을 위한 신사업 추진을 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시장 변화를 선도하며, 우리의 고객 저변을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냉철한 인식과 반성을 통해 우리금융을 더욱 단단한 신뢰의 기반 위에 세워가자”며 “올해 신뢰 회복을 위한 절실한 노력을 임직원들과 함께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서울 회현동 우리은행 사옥 전경.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지난 3일 상업·한일은행 양 동우회 통합 추진 업무협약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

#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 하나되어 100조 규모의 아태지역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으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 에너지를 찾아라

SK이노베이션이 SK E&S와의 합병으로 더 크게 더 높게 도약합니다

펼쳐진 지도 속 더 나은 내일을 향하는 우리의 에너지를 직접 찾아보세요

QR 코드를 찍어 접속해 10개의 숨은그림을 찾아보세요!



# 항공참사특위, 활동 본격화… “진상규명·피해구제 총력”

위원장·간사 선임, 소위원회 구성  
내일 피해자 가족대표단과 간담회  
국도위,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처리  
허위사실 유포 등 엄중 조치 요구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항공참사특위)가 1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항공참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각각 선임했다.

특위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소위 소속 위원 수는 각 7인으로 하며,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김은혜 의원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수진 의원을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 위한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시

각각 선임했다.

권영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

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전에 여객기 참사 특위가 구성돼서 추모와 위로의 출발이 됐다는 생각”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분들과 함께

그분들의 시선으로 이번 특위에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에서 고인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고 생각한다. 소위원장으로써 여야 위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이수진 의원은 “참사 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의 비통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지 엄두는 내기 어려웠다”며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의 말을 듣겠지만 이를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하고 법안 제정, 특별법 제정 등 적극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월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1월 18일엔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도위는 지난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제안과 함께 그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있었다.

결의안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등을 핵심 골자로 담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국민의힘,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오늘 野와 협상

본회의 일정 맞춰 오늘 당론 발의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담 예정  
野 “밤 새우더라도 협의 준비 돼 있어”  
내부결속용·내란세력 보호법 지적도

국민의힘이 16일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반대하며 ‘비상계엄 특검법’안을 의원 108명 전원 동의를 받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의 이념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법안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도입은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것이 바로 특검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던 중 고개를 떨구고 있다. /뉴스시

이어 “검·경·공수처가 경쟁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며 “그렇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협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그것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그

런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하에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님께서 동의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특검법’은 민주당 안에서 문제가 됐던 일반 국민까지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특검 추천 방식은 내란 특검법이 제3자인 대법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체포 당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해선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처지를 토로하며 울먹였다.

국민의힘은 원래 특검법안을 발의할 생각이 없었지만, 당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발생하면 야당의 특검안이 통과될 수 있음을 우려해 자체 특검안을 마련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쟁용 특검을 철회하고 특

검법 수정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다. 그 출발점은 우리 당이 마련한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의장과 면담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장이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특검법은 내일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며 “법안이 오전에 발의되면 특검법안의 협상과 협의를 위해 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내일 (17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2차 내란특검법안은 이미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상관없이 1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도 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다. 민주당은 밤새우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이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며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당론 결정에 “실제로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은 내란선동죄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추가, 수사인력·수사기간도 줄이겠다”면서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의 특검법은 ‘내부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란동조당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오늘 중으로 당장 발의하라”며 “그것이 국민에게 석고 대죄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 국민의힘, 탄핵심판 끝날 때까지 ‘尹 손질’ 어려워

강성 지지층, 당내 목소리 커  
배신자 프레임 피하려는 움직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고발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도 수사기관에 신병을 확보당한 상황임에도, 탄핵심판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통령과의 ‘결별’이 어려운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

날(15일)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사법 쿠데타” “명백한 법치농단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공수처와 국수본, 법원 등 윤 대통령 체포에 관여한 수사·사법기관을 “민주당의 사병집단” “이재명 세력의 찬탈도구”라고 불렀고,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이

재명 세력이 무차별적으로 탄핵안을 남발해온 데는 현재의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특검 심판에도 원인이 있다”며 “야당 배후설”까지 언급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국민 여론도 탄핵 인용이 다수인 상황이다. 이럴 경우 현재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배신자 프레임’이 당내에서 트라우마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당내에서 목소리가 큰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태도를 바꾸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결별을 선택하면, 당내 목소리가 큰 강성 지지층이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최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는 국민의

힘 지지율도 윤 대통령과의 ‘손질’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로도 보인다. 게다가 12·3계엄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날 발표되기도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결별 준비를 시작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했다. 야권의 ‘내란·외환특검법’이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만 기대야 하기 때문이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쉬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 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 ‘유병자 가입도 쉽게’… 보험사, 올해도 보장성보험 경쟁

새 회계기준 도입에 발맞춰 건강보험 시장 점유율 공략 현대·KB·한화, 신상품 선배 맞춤형 상품으로 보장 강화

보험사들이 연초 첫 상품으로 건강보험을 선보이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험업계의 ‘보장성보험’ 상품 경쟁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연초부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 시장 점유율은 손해보험사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건강한 유병자를 위한 ‘내삶엔(3N)맞춤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고객의 치료 이력 구분을 세분화해 맞춤형 가격을 제공한다.

입원과 수술의 고지기간을 각각 5년까지 분리해 총 35가지의 가입유형으로 개인별 치료 이력을 세분화해 보험료에 반영했다. 특히 업계 최초로 신용정보원의 보험금청구이력과 입력된 고지사항으로 맞춤형 가입 유형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현대해상은 “1년 전 입원이력은 있지



Chat GPT가 생성한 건강보험 이미지.

만 수술이력은 5년이 경과한 경우 기준의 상품보다 약 15%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3.N.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와 ‘KB 골든케어 간편건강보험’ 등 2가지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두 상품 모두 유병자를 위한 간편고지형으로 구성했다.

‘3.N.5’는 업계 최초로 통합 유병자 보험에 요양병원 상해입원일당, 방문요양 급여 지원금, 데이케어센터 급여 지원금, 시설·재가 급여 지원금 등의 요양·간병 보장을 담재했다. ‘골든케어’ 건강보험은 과거 치료력으로 인해 치매·간병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의 간편 가입이 가능하다.

한화손해보험도 유병자 고객의 보

험료 부담을 줄인 ‘더 경증 간편건강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계약 전 알릴 사항 중 ‘5년 내’ 입원 또는 수술 여부를 ‘10년 내’로 늘렸 기존 대비 약 16%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추격자 입장인 생명보험사도 연초부터 건강보험 출시로 맞불을 놓고 추격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한화생명은 종신보험 2종과 함께 건강보험을 출시하면서 보장성 상품시장 선전에 나섰다. 그중 ‘뇌심근건강보험’은 ‘심부전’, ‘대동맥박리’ 등 중증의 심장 및 혈관 질환까지 보장범위를 넓혔다.

ABL생명은 ‘ABL건강N더보장종합보험’을 출시했다. 주계약은 사망(경신형의 경우 재해사망)을 보장한다.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암, 간병, 수술·입원, 고령화로 발병률이 높은 치매, 뇌혈관질환, 관절염 등 질병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유병자 고객은 자신에게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설계할 수 있다.

DB생명은 ‘실속N 7대질병 건강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업계 최초로 주요 7대 질병을 모두 보장하면서 보장받는 횟수는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암, 뇌혈관 및 허혈성심장질환을 포함해 중기이상 만성 폐질환과 간질환, 만성 신부전증, 중등도이상 치매까지 주요 7대질병을 고객이 선택한 횟수 N번만큼 보장한다.

보험사들이 연초부터 건강보험 상품을 선보인 요인으로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보장성보험 확보 경쟁이 꼽힌다. 보장성보험은 새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이후 보험사 수익성의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용의하고 회계상으로 유리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 변경 이후 CSM 확보를 위해 보장성 보험 위주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출시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보험 브리핑



지난 14일 서울시 강남구 DB금융센터에서 정종표 DB손해보험 사장(왼쪽)과 허주형 대한수리사회 회장이 ‘개물림보상보험’ 출시 기념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B손보

## DB손보-대한수리사회 반려동물 책임 강화 개물림보상 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대한수리사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개물림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반려동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원으로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반려동물 사망 시 15만원의 위로금과 500만원 한도의 반려동물 배상책임 손해를 보장한다.

## 삼성생명 컨설턴트 역량 강화 교육육성체계 개편

삼성생명은 컨설턴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육성체계를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강상품 중심의 상품교육 개편’과 ‘비보험, 인문·AI 활용’ 과정 신설로 종합 컨설팅 역량을 배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건강상품 중심의 상품교육은 상품의 주요보장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6대 질병’과 ‘7대 치료과정’ 중심으로 개편했다. 고객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신탁 및 퇴직연금과 같은 비보험상품 과정을 보강했다. 경제금융상식, 의학, 이미지 메이킹과 같은 인문소양 콘텐츠를 30회차 신규 편성했다.

## 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 현장 임직원, 실천 서약식

한화생명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현장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한화생명 GA 자회사 3사의 대표이사를 필두로 4개사의 최고고객책임자(CCO)와 임직원도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소비자권의 보호가 기업 존속 및 성장의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재다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현장은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제공 ▲완전판매 ▲고객서비스 ▲민원공정·신속대응 ▲고객 자산·정보 보호 등의 행동강령과 실천의지를 담았다. /김주형 기자

# 임종룡 “윤리 의식 내재화… 신뢰받는 우리금융 되자”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 워크숍 임직원들 윤리경영 실천 결의 다져 자산 리밸런싱·계열사 시너지 추진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신뢰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개인의 윤리 의식 제고와 조직 내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 그룹 차원의 윤리경영 실천에 모두가 한뜻으로 몰입해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임직원들에게 윤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하고, 조직과 업무 전반의 약한 고리를 반복적으로 점검해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서울 회현동 소재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2025년 그룹 경영전략 워크숍’에서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날 올해 경영전략 공유와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2024년 성과 리뷰 ▲



우리금융그룹이 지난 15일 회현동 소재 본사 비전홀에서 ‘2025년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여섯번째)과 그룹사 대표들이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

2025년 전략 방향 공유 ▲유공직원 시상 등 기존 경영전략워크숍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도 예년과 다르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을 진행해 신뢰받는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다짐의 장으로 차별화했다.

임 회장은 “기업문화는 단기간에 바뀌지 않으며 윤리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한번에 만드는 ‘주조’ 작업이 아니라 쉽 없이 담금질을 계속 해야하

는 ‘단조’작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중단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회장은 지난해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한 해를 마무리한 그룹 임직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경영전략으로 ‘보통투자본비율제고를 위한 자산 리밸런싱’과 ‘14개 계열사가 원팀으로 뭉쳐 시너지 창출’ 등을 제시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상반기 1기 신도시 예비사업 시행자 선정

국토부, 노후도시 지원기금 점검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금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금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국토부와 지원기금의 업무 목표표로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도시핀드투자설명회(3월) 및 모펀드 조성(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3월, 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금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정철동 “4세대 OLED, AI TV 최적화… 프리미엄 시장 공략”

(LG디스플레이 사장)

## LGD 신기술 설명회

올해 경영키워드 ‘J·U·M·P’ 제시 OLED 중심 사업구조 고도화 방침 ‘프리미엄 RGB 탠덤’ 기술 구현

정철동 LG디스플레이 사장이 인공지능(AI) TV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4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패널을 공개했다. 또 정 사장은 올해 경영키워드로 도약을 위한 ‘점프(J·U·M·P)’를 제시했다.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출시되는 AI TV가 최대 8K 이상의 초고화질을 구현함에 따라 패널 또한 높은 휘도와 에너지 효율을 모두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올해 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 ◆“올해 반드시 턴어라운드”

정 사장은 16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4세대 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기술 설명회’에서 “지난해 반전의 기반을 만들었다면, 올해는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 원가, 생산 등에서 지속적으로 차별적 가치를 만들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천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중국 광저우) LCD 공장 매각을 현



정철동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진행한 4세대 OLED D 패널 기술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재 진행 중인데, OLED 사업에 집중하며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LG디스플레이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경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26조6153억원, 영업손실 5606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출은 전년(21조3308억원) 대비 25% 증가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전년(2조5102억원) 대비 약 2조원 가량 줄었다.

LG디스플레이는 이같은 실적 개선을 기반으로 올해 OLED 중심의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해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도약을 위한 올해 경영 키워드



16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디스플레이 직원이 4세대 OLED 패널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소개하고 있다.

로 ‘점프(J·U·M·P)’를 제시했다. 점프는 ▲저스트(Just in time·진정한 변화 위한 적기) ▲유니크(Unique value·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적 가치) ▲마켓(Market leadership·올레드로 시장 선도) ▲파트너십(Partnership·고객이 신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의 의미를 담은 영단어 앞글자에서 따왔다.

다만, 정 사장은 올해 업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 ◆4세대 OLED TV 패널 선배

이날 LG디스플레이는 AI TV 시대에 최적화된 4세대 OLED TV 패널을 선보였다.

LG디스플레이의 4세대 OLED TV

패널은 최대 휘도 4000니트(1니트는 쫓겨볼 한 개의 밝기)를 달성했다. 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휘도다. 휘도가 높을수록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은 생생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휘도를 화질의 핵심 요소로 꼽는다.

이번에 공개한 4세대 OLED TV 패널의 가장 주목할만한 부분은 ‘프리미엄 RGB 탠덤’ 구조를 구현했다는 점이다. 이는 RGB(적·녹·청) 소자를 독립적으로 쬐어 빛을 내도록 한 것으로 LG디스플레이만의 독자 기술이다.

회사는 그동안 에너지 과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청색 소자를 두 개 층으로 쬐고 한 개 층에 적색, 녹색, 황색 소자

를 모두 배치하는 3개 층 구조의 광원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기술에 한 개 층을 더 추가하고 생산되는 빛의 양도 더 늘렸다. 이는 두 개의 청색 소자층과 각각 독립된 적색, 녹색 소자층을 더해 총 4개 층으로 광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LG디스플레이는 색 표현력을 강화해주는 컬러 휘도도 2100니트를 달성해, 직전 세대(1500니트) 대비 40% 향상시켰다.

이와함께 전력 소모가 크게 늘어나는 AI TV에 맞춰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시켰다. 소자 구조 및 전력 공급 체계 개선을 통해 패널의 온도를 낮추는데 성공하면서 기존 대비 에너지 효율이 약 20%(65인치 기준) 개선됐다.

LG디스플레이는 또 패널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과 패널 내부로 흡수됐다가 반사되는 빛을 99% 차단하는 특수 필름을 적용했다. 이는 한낮의 거실에서도 불이 꺼진 영화관에서 보는 것처럼 빛 반사 없는 완벽한 블랙을 구현한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양산하는 최상위 라인업에 4세대 OLED TV 패널을 탑재해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격차를 공고한다는 전략이다. 게이밍 OLED 패널에도 4세대 OLED TV 패널에 적용된 프리미엄 RGB 탠덤 기술을 순차적으로 탑재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이후 첫 주주총회 개최

# 송보영 신임대표 선임… 통합 항공사 체제 ‘초읽기’

송 대표, 대한항공서 ‘항공통’ 평가 조성배, 강두석 신임 사내이사 선임 LCC 등 양사 통합 가속화 전망



사등이 선임됐다.

송보영 신임대표는 지난 1988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한국지역본부 여객사업본부장, 모스크바지점장, 미주지역본부장 등을 거친 ‘항공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신임대표는 항공업과 여객영업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의 DNA’를 이식하는

작업을 이끌 책임자로 주목받고 있다.

함께 선임된 조성배 부사장과 강두석 부사장은 대한항공에서 각각 자재 및 시설부문 총괄을 맡았으며 인력관리본부장을 역임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재무 전문가, 최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 중인 석학이며 김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다.

이날 주주총회 기준이 된 아시아나항공의 총주주수는 14만6289명, 발행주식총수 2억599만711주다. 이날 약 1억6889만7464주(81.99%)에 대한 의결권이 행사되면서 주주총회 정족수가 충족됐다. 현장에 참여한 주주 숫자는 218명

이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는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으로 참여했다. 지난 2년여간 아시아나항공을 이끌어온 원 대표이사는 고문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원인사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산하 LCC들이 각각 합쳐질 통합 항공사 출범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안전과 서비스라는 근간을 토대로 항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부분변경

현대차 제네시스 브랜드가 16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 제네시스 수지에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 포드 미디어 데이’를 열고 GV70 전동화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현대자동차 ‘EV 에브리케어’ 리뉴얼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라이프 통합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차가 전기자동차(EV)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케어 프로그램 ‘EV 에브리(Every)케어’의 혜택과 보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2025EV 에브리케어는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긴급충전특약보험 ▲잔존가치 보장 확대 등의 혜택을 강화했다. 또 ▲충전 크레딧 또는 흡충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혹은 EV 전용 타이어 2본 중 선택한 하나를 제공하는 ‘EV 구매혜택’ ▲신차 교환 지원 ▲일반 부품 보증 연장 및 바디케어 서비스 등의 기존 혜택도 포함한다.

/양성운 기자 ysw@

## 배터리업계, 지난해 4분기 영업적자 전망

판매가격 하락세…역래깅 겹쳐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가 4분기에도 영업적자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배터리 판매가격 하락이 지속된 점과 역래깅(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원재료 투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사들의 4분기 동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업계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미뤄진 분위

기다.

유럽 경기 침체 영향에 따른 판매량 부진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유럽의 완성차 배출규제와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에도 불구하고, 올해 글로벌 전기차 수요 정체는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LG에너지솔루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25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미

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세제혜택 금액은 3773억원이다. 해당 금액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영업손실은 628억원에 달한다. LG에너지솔루션이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3분기 이후 3년여 만이다.

삼성SDI와 SK온 역시 증권사에서는 적자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SDI는 4분기 매출액 3.8조원으로 전년 대비 32.1%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영업손실 1231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 대비 70.9% 감소한 수치다. 4분기 삼성SDI의 전기차 사업부 주요 고객사 및 브

랜드의 친환경차 인도 대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SK온은 AMPC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독립적인 수익 모델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SK온은 4분기 2000억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 분기 240억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를 기록한 지 1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럽 내 2만5000유로 미만의 보급형 전기차 출시에 따른 수요 회복 기대감도 존재한다. 배터리사들은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확대 기조를 지속하며 신제품 개발에 뛰어들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 스마트홈, 음악 서비스와 시너지... 新 생태계 구축 '가속화'

삼성·LG, 플랫폼 연동 시장 선도  
AI·IoT 결합, 맞춤형 서비스 확산  
중소, 기술 혁신으로 생태계 확장  
글로벌 IT, 음악 플랫폼 협력 경쟁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의 융합으로 스마트홈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면서 산업계의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스마트홈 기기의 연동이 활성화되면서 국내·외 IT기업들이 새로운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스마트홈 시장 규모는 2024년 약 1216억달러에서 연평균 22.9% 성장해 2032년에는 약 633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향후 1~2년 안에 전 세계 가정의 절반 이상이 최소 5개 이상의 스마트홈 디바이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내 스마트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빅테크를 제치고 1,2위를 유지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양사는 스마트홈 플랫폼 시장에서 음악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생태계 확장에 힘쓰고 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플랫폼 '스마트싱스'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를 연동돼 삼성 스마트 TV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손쉽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 스마트싱스는 AI를 활용해 사용자



LG전자는 AI 홈 허브 '싱큐 온'에 플랫폼 플로(FLO)를 연동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위 사진은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 전시된 LG전자 AI홈 존. /LG전자

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고 최적화된 홈 루틴을 제안한다.

LG전자는 AI 홈 허브 'LG 싱큐 온'에 플랫폼 플로(FLO)를 연동한다고 16일 발표했다. AI가 탑재된 LG 싱큐 온은 다양한 AI홈 허브가 집안 곳곳에 설치된 센서로 고객의 말과 행동,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연결된 IoT 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제어하며 고객을 케어한다.

향후 플로와 협업해 약 8천만 곡의 음원과 AI 추천 기술을 바탕으로 맞춤형 음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싱큐 온은 네이버의 AI 플랫폼 '클로바'와 연동돼 LG 가전제품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다.

KT는 AI 스피커 '기가지니'도 카카오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과 연

동해 음성 명령을 통해 멜론의 음악을 재생하거나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 또 TV와 연결된 기가지니를 통해 멜론 콘텐츠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커넥티드카서비스'를 통해 카카오 AI 플랫폼과 연동해 차량과 스마트홈 간 연결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음성 명령으로 차량을 제어하거나 음악, 네비게이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도 스마트홈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AI 기반 음악 라이브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뮤직 큐브'는 고객의 감정 상태에 따라 맞춤형 재생목록을 자동 생성해 개인화된 음악 경험을 제공한다.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아이오티크'는 스마트 스피커와 음성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가전

기기 통합 설루션을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음악과 팟캐스트 서비스와의 연동을 확대 예정이다.

이 외에 스타트업 레가토는 스마트홈 표준인 '매터(Matter)'와 호환되는 스피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도 저전력의 와이파이 스피커를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홈 생태계 확장을 돕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스마트홈과 음악 서비스의 협력은 활발하다. 구글의 '네스트' 스피커는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동할 수 있다. 아마존의 '에코' 스피커 역시 알렉사를 통해 아마존 뮤직, 애플 뮤직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네이버웹툰

### 日 웹툰 스튜디오

### '넘버나인' 첫 투자

'네이버웹툰'의 일본어 서비스 운영사 라인 디지털 프론티어가 일본 전자 만화 에이전시 주식회사 넘버나인에 투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네이버웹툰은 일본에서 창작 생태계를 확장하며, 글로벌 스토리텔링 콘텐츠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네이버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넘버나인은 협력을 통해 일본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창작 생태계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2016년 일본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넘버나인은 전자 만화 중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최근 웹툰 제작 스튜디오로 사업을 확장했다. 넘버나인이 제작한 웹툰 '신혈의 구세주'와 '나만 최강 초월자'는 지난해 '라인망가 2024 랭킹' 상위 10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작품들은 네이버웹툰의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다.

/이혜민 기자

# “MBK·영풍, 적대적 M&A 시도... 절대 함께하지 않을 것”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 성명서 발표  
“기술 유출·산업 경쟁력 붕괴 우려  
신사업 물거품, 국가적 손실 가능성”

고려아연이 미래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윤범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 원팀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6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재중 고려아연 최고기술책임자(CTO) 부회장을 비롯한 핵심 기술진 일동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투기적 사모펀드 M

BK와 심각한 환경오염 및 적자 등에 시달리며 실패한 기업 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경우 고려아연은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진들은 “우리는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MBK·영풍의 적대적 M&A 시도가 성공할 경우 MBK·영풍 측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앞서 고려아연 핵심 기술진은 지난 2024년 9월 MBK와 영풍이 기습적인

적대적 M&A를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기술인력들, 그리고 고려아연의 모든 임직원은 현 경영진과 함께 할 것”이라며 “MBK파트너스 같은 투기 세력이 고려아연을 차지한다면 핵심 기술은 순식간에 해외로 빠져 나갈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은 무너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MBK와 영풍은 탄탄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해온 고려아연을 뺏고 싶다는 생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적 M&A가 혹여라

도 성공할 경우 고려아연이 그간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사업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며 이는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직 단기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투기적 사모펀드다운 발상으로, 돈만 많이 주면 된다는 천박한 인식에 모멸감마저 느낀다”라며 “국가 기간 산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영을 논할 자격도 없다”고 덧붙였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 라이프집 팝업 '낭만 오두막' 운영

광주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서 진행

LG전자가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 스키장에서 라이프스타일 커뮤니티인 '라이프집(Lifezip)'의 팝업스토어인 '낭만 오두막.zip'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겨울 스키를 타기 위해 곤지암리조트를 찾은 고객들에게 따뜻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눈 속 오두막' 콘셉트로 꾸몄다.

고객들은 이 오두막에서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프리미엄 무선

스피커 LG 엑스붐 360, 초소형 4K 프로젝터 LG 시네빔 큐브 등 최신 LG전자 가전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숲 속 오두막 느낌을 재현하기 위해 물류 현장에서 가전제품을 적재하고 나르는데 사용하는 나무 팔레트로 오두막 외관을 장식했다. 이 나무 팔레트는 추후 팝업스토어 등에 재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라이프집 회원 수는 지난해 1월 5만명을 넘긴 이후 1년만에 8배 가까이 늘어 최근 39만명으로 늘어났다. /구남영 기자 koongja\_tea@

## 와디즈 “AI 아트부터 피트 아우돌프까지”

'삼무서점' 오는 29일까지 진행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오는 29일까지 출판 기획된 '삼무서점'을 진행한다. 삼무서점(3無서점)은 차별, 재고, 반품이 없는 서점을 뜻하는 특별 출판 기획전으로, 최근 출판 분야 펀딩의 성장세에 힘입어 와디즈가 선보인 행사이다. 인공지능(AI) 아트, 민화, 사진집 등 차별화된 큐레이션을 통해 독특한 분야의 도서와 전자책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무

서점은 ▲AI아트 ▲북스톤 ▲북케이션 ▲북프리랜서 ▲키즈 등 총 5개 분야로 콘텐츠를 소개한다. 북스톤 카테고리에서는 방 안에서 만나는 예술이라는 콘셉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해외 번역서, '내 방에서 만나는 위대한 침묵 '반가사유상' 등을 소개한다.

북케이션 카테고리에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콘셉트로,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피트 아우돌프가 직접 그린 도면 작품집을 와디즈 한정판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혜민 기자



지난 14일 서울 성동구 원밀리언 사옥에서 열린 '지니뮤직·원밀리언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가운데)서인욱 지니뮤직 대표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왼쪽)이유정 안무가와 (오른쪽)원밀리언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니뮤직

## 지니뮤직

### “음악과 춤의 융합”

원밀리언과 K-POP 콘텐츠 협력

미디어 플랫폼 지니뮤직이 댄스 레이블 원밀리언과 콘텐츠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사는 향후 음악콘텐츠, 굿즈(MD) 등 부가콘텐츠, 공연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원밀리언은 국내 최고 안무가 리아킴과 45명의 전문 안무가가 이끄는 댄스 레이블이다. 지니뮤직은 음악플랫폼, 콘텐츠, 인공지능(AI)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원밀리언과 공동사업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인욱 지니뮤직 대표는 “당사의 음악 사업 경쟁력과 원밀리언의 퍼포먼스 제작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량 원밀리언 대표는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은 음악과 춤, 콘텐츠를 융합해 전 세계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경험을 제공할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알뜰폰 + 기가WiFi 인터넷 + UHD TV 결합 혜택

# 통신비 다이어트

지금 받고 있는 혜택에 만족하세요?  
바로 비교해봐도 **70만원** 손해!



LG헬로비전 기가라이트500Mb + UHD뉴베이직 TV + 7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K사 베이직500Mb 인터넷 + 266채널 동급 TV + 5기가 모바일 무제한 요금제 결합  
※인터넷/TV 36개월 약정 기준 ※VAT포함, STB임대료 별도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 올해도 유상증자 기업 늘까... 경기침체에 투자자 우려 커져

고금리·경기 부진 장기화로 자금난 운영자금·부채상환 목적 사례 늘어 영업익 전망, 3개월 전비 23.3兆↓ 기업, 성장 가능성 청사진 제시해야

기업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유상증자에 나서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올해도 경기 침체로 인해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상증자를 실시한 상장사는 총 502개사로 전년(470개사) 대비 32개사 증가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77개사로 전년(78개사)과 비슷했으나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본금은 1조9486억원에서 2조2757억원으로 3271억원 증가했다. 코스닥 상장사는 425개사로 전년(396개사) 대비 29개사 증가했으며, 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주가 하락 이미지.

본금도 전년보다 43.26% 증가한 1조3035억원에 달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기존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

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인식된다. 특히 최근 들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거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운영자금 마련과 부채 상환을 위해 유상증자에 나서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에는 변화가 없는데 주식 수만 늘어나면 주당순이익(EPS)이 감소, 주가 하락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영 실패의 책임을 주주의 자금으로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이에이트는 177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조달 자금 중 70억원을 전환사채(CB) 상환에 사용할 계획을 발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반도체 기반 제조사 이수페타시스는 2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추진했으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이차전지 소재 기업 인수라는 점에서 주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바이오기업 차바이오텍도 2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최대 주주가 배정 물

량의 약 40%만 소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고금리와 경기 부진 장기화로 국내 기업들의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유상증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컨센서스)는 286조118억원으로, 3개월 전 309조3710억원에서 약 23조3592억원 줄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 악화와 금융권의 대출 제한 등 자금줄이 타이트해진 환경에서 기업들이 자금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누적된 적자와 고갈된 자금 속에서 이뤄지는 유상증자는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어 기업은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조선株,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쾌속'

삼성重, 올해 들어 18.14% 올라 전 세계에서 FLNG 경쟁력 돋보여 한화엔진 등 조선·엔진株 신고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조선업 협력 기대감이 오르면서 조선주를 비롯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18.14% 올랐다. 이날도 전 거래일보다 2.69% 오른 1만3350원에 마감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했다. 전날에도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한화엔진, 한화오션, HD현대마린엔진, HD한국조선해양, STX엔진 등 조선·엔진주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중공업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글로벌 LNG 투자, 생산 확대가 전망되면서 목표주가가 올랐다"며 "한화엔진, HD현대마린엔진, 한국조선해양 등 다수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6일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소폭 하락했다.

조선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주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목을 받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선박이 필요하지만 배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며 "선박 건조와 관련해 동맹국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언급된 동맹국이 한국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전세계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시장에서 돋보이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부터 북미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LNG 투자와 생산 모멘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계 최고의 FLNG 건조 트랙레코드와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중공업의 차별성은 올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주 강세에 따라 관련 ETF도 오름

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일(1월 9~15일)간 'SOL 조선TOP3플러스'는 17.31% 상승했다. 국내에 상장한 조선 ETF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이다. 이외에도 'KODEX K-친환경조선해운액티브'가 15.14%, 'TIGER 조선TOP10' 14.76%, 'HANARO Fn조선해운' 14.32% 등이 모두 올랐다.

더불어 지난달 24일 상장한 PLUS 한화그룹주 ETF도 상승 흐름에 탑승했다. 해당 ETF는 12개 한화그룹 계열사로 구성됐는데 ▲한화오션·한화엔진(조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방산) ▲한화투자증권(비트코인)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한화투자증권(금융) 등 '트럼프 수혜주'들이 다수 포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지난해 국내시장이 글로벌 주시 대비 과도하게 부진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 섹터는 2023년 연말부터 이어진 상승행진이 지속됐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초당적인 발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내 조선업에 중요한 기회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2025년에도 조선이 국내 증시의 주요 섹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현대차證 "2028년까지 배당성향 40% 달성"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현대차증권이 향후 3년간 배당성향 30% 이상 보장, 2028년 배당성향 40% 이상·자기자본이익률(ROE) 10% 이상 달성 등을 골자로 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증권은 16일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재무 안정성 및 자본 효율성을 기반으로 안정 수익을 창출하

고,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통해 업계 최고의 '고객 및 주주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배당성향은 2028년까지 업계 최고 수준인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5년간 평균 연결기준 배당성향보다 13% 높은 수준이다. 또 2025년부터 3년간 연결기준 배당성향 30%~35% 수준을 유지하고, 배당성향 하한도 30%로 정했다. 이와 함께 기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잔량 약 704만주를 올해 5월 전량 상환한 후 소각할 예정이다. 총 775억원 규모이며, 소각 이후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향후 추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자금 노력을 통해 매년 ROE를 높이며 2028년까지 ROE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과도하게 저평가돼 있는 주가순자산비율(PBR)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현대차증권의 PBR은 0.22배로, 증권업종 특성을 감안해도 낮은 수준이다. /신하은 기자



여의도 역사로 가는 길목에 설치된 메리츠증권 수수료 이벤트 옥외광고.

/허정윤 기자

## 증권사, 수수료 우대로 신규고객 유치 박차

삼성증권, 국내주식 수수료 혜택 미래에셋증권, 수수료 '0원' 행사 메리츠증권 'Super365' 눈길

연초 코스피가 2500선을 회복하는 등 올해 국내와 미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확산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저렴한 수수료 이벤트를 앞세워 고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 통계에 따르면 투자자에게는 지난해 12월 24일 50조 6265억원에서 지난 15일 52조 784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2조 원 더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증시 대기자금의 증가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움직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기대감 고조, 국내 증시의 저평가 국면 진입 평가 등이 맞물리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은 자금 유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첫 투자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수수료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내달 28일까지며 대상은 기간 중 비대면 종합계좌를 개설한 신규·휴면 고객이다. 고객은 계좌개설일로부터 92일 동안 0.0036396%의 수수료만 내고 국내주식을 거래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0.01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미래에셋증권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가입한 고객에 한해 90일간 미국주식과 국내주식에 대해 온라인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연다. 키움증권의 경우는 비대면계좌로 신규개좌를 트거나 휴면계좌를 켜 고객에게 6개월 동안 0.

0036396%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최초 신규 고객에게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평생우대(0.0036396%) 전략을 펼치며 동시에 '주식 1주'(코스피 200 기업 중 한 종목)를 증정한다.

이런 수수료 우대 이벤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와중에 단연 돋보이는 곳은 메리츠증권이다. 메리츠증권은 'Super365'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 확장에 성공했다.

'Super365'는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 투자 계좌로 2026년 12월 말까지 국내·미국 주식과 달러 환전을 무료로 누릴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수수료 이벤트 중 가장 파격적이고 긴 기간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기존·신규 고객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유관기관 수수료를 포함한 제 비용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 이목을 끌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평균으로는 약 1500개의 계좌, 460억원의 자산이 늘며 자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해외주식 거래액수도 이벤트 시행 전과 비교해 약 50배 급증했으며, 신규 고객 이다수"라고 밝혔다.

실제로 'Super365' 예약자산 추이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수수료 이벤트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8일 전에는 9355억원이었던 예약자산은 11월 말 1조2903억원, 12월 말 2조9425억원, 1월 2일 3조446억원을 기록하며 3조 원대를 돌파했고 이달 14일에는 3조6700억원을 넘어서며 4조 원대를 노리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지능형로봇 등 25개 산단 ‘합심’ 초광역 산업클러스터 본격 가동

## 산업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

입주사 1921곳, 대학·연구소 등 816개 다양한 지역혁신기관 참여

지능형로봇, 첨단바이오 등 9대 산업분야 25개 산학연협의체가 출범한다. 산업단지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산단을 넘어 협업하는 초광역 산업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대표기업을 포함한 5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초광역 산학연협의체는 올해부터 미래모빌리티,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지능형로봇, 첨단제조, 항공·방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에너지 신사업(수소) 등 9대 산업 분야의 25개 산학연협의체로 구성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산업단지 산학연협의체는 기업간 네트워킹 활동, R&D 등을 지원받아, 기업 공동 비즈니스 전개, 공동 브랜드 개발, 해외 시장 개척 등 성과를 창출해왔다.

하지만 개별 산업단지별로 구성되

타 지역의 기업이나 기관 등과는 협업하지 못하고 각 산업단지내 혁신기관·자원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범하는 25개 산학연협의체는 공간적 규모를 확대한 개방형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고, 지역간·산업단지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1개의 산학연협의체에 2개 이상의 다른 산업단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산학연협의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1921개사 외에도 대학, 연구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산업디자이너, 사업화전문회사 등 816개의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한다.

각 산학연협의체는 기업 등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기적 활동 점검을 통해 성과가 부진한 협의체는 선정을 취소하고, 신규 협의체를 계속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협력파트너 탐색,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지원사업 매칭 등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KICXUP비즈모아)도 올해부터 제공한다.

KICXUP비즈모아 서비스는 400여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사업 정보를 상시 자동 수집하고, 기업 규모와 업종, 매출액, 수출 여부 등 30가지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최적의 지원사업을 매칭해 주는 시스템으로, 산학연협의체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K팩토리(www.kicox.or.kr/kfactory) 회원가입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의 경우, 개별기업형, 공동협업형, 규제규범대응형 3대 분야에 올해만 1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학연협의체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I) 촉진사업, 데이터플랫폼 구축 등도 추가로 기획해 추진할 방침이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단지별로 산재해 있는 혁신 자원과 역량의 연계와 결집이 중요하다”며 “초광역 산학연협의체가 첨단산업 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이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이호성 하나은행장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무보

## 무보-하나은행, 수출기업 5100억 우대금융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업무협약 체결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하나은행이 수출 중소기업에 5100억원 규모 우대금융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중소기업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산업부가 추진한 우대금융 공급 관련 하나은행의 1차 400억원 규모 출연의 성공적 조기 공급에 이어 3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은행

의 기금 출연과 무보의 무역보험·보증 우대지원을 결합한 민간·공공부문의 협력 신상품이다.

무보는 은행 추천기업에 ▲지원한도 최대 2배 우대 ▲보증비율 95%로 상향 ▲보증·보험료 20% 할인 등을 지원하고, 하나은행은 ▲대출금리 인하 ▲외국환 수수료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추가 출연을 통해 5100억원의 우대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수출신용보증 종목도 확대돼 1차 협약 대비 유동성 지원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공공일자리 287.3만개... 7년새 첫 감소

통계청, 2023년 공공 일자리통계  
코로나19 방역 담당인력 감소 영향  
교육서비스 -1.1%, 정보통신 -5.1%

지난 2023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7년 사이 처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 수를 가리킨다.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던 인력이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공공 일자리 수는 287만3000개로, 전년보다 0.2%(5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건 지난 2016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관련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 6.1%, 2020년 6.3%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21년 2.6%, 2022년 1.4% 등으로 둔화한 바 있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뉴스1

제작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41만 4000개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일반정부 일자리가 245만 9000개로 전년 대비 0.2%(5000개) 감소했다.

산업분류별로, 교육서비스업에서 약 8000개(-1.1%), 정보통신업에서 약 4000개(-5.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에서 약 1000개(-1.0%)

가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일반정부에 속해 있는 교육청의 비공무원 일자리에서 감소 폭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교육부의 방역인력 지원이 점차 축소돼 오다 완전히 폐지됐는데 그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2년 10.2%에서 2023년 10.0%로 줄었다.

성별로 남성 일자리 수는 148만1000개로 전년대비 약 8000개(-0.6%) 감소한 반면, 여자 일자리 수는 139만3000개로 약 4000개(+0.3%) 증가했다. 일반정부 일자리는 남자(122만8000개)와 여자(123만1000개)가 비슷했다. 하지만 공기업 일자리의 경우 남자(25만3000개)가 여자(16만2000개)에 비해 1.6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나이 상향해야”

권익위, 청년범위 34세로 확대  
복지부에 법령개정·지침 권고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취업 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한 아동복지법의 나이 제한을 현실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입대와 대학 졸업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자립준비청년이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23세에서 실효성 있게 연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

간을 보호종료 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사실상 23세까지로 한정된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나 대학을 졸업한 후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현실적인 한계와 불합리함이 지적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범위(34세)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또는 지침 마련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사내대학과 사내대학원간 비교〉

/자료=산업부

	사내대학	사내대학원
근거법	평생교육법 제32조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4조
운영 방법	직접운영 또는 대학교 위탁운영	좌동
학위과정	전문학사 및 학사	석사 및 박사
입학자격	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협력사 종사자+채용후보자
교육비용	고용주 부담	좌동

## 기업내 대학원 설치... 석·박사 학위 준다

### 산업부 ‘첨단인재특별법’ 시행

회사 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제정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하 첨단인재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7일 시행된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 인재양성 참여 지

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지금까지 기업 내에서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현장 전문가와 첨단·고가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 올해 농가소득 2.6% 늘어 5435만원 예상

### 농촌경제연구원, 농가인구 200만 붕괴 눈앞

올해 농가 평균소득이 5500만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영 여건이 개선돼 농업소득이 증가하는 동시에 직불제가 확대되면서 이전소득도 늘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농가인구는 200만2000명으로 추산돼 200만 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6일 서울 송파구에서 ‘농업전망 2025’ 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업 관련 주요 지표 동향과 전망을 발표했다.

KREI는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6% 늘어난 5435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호당 농업소득은 2.7% 증가한 1312만 원, 이전소득은 농업직불금 등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3.0% 늘어난 1803만원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호당 농가소득은 농업소득에 이전소득, 농외소득, 비경상소득을 더한 값이다. 이전소득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익으로, 농업직불금을 포함한다. 호당 비경상소득은 정기적이지 않은 사건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벤처투자시장 1조 '마중물' 붓는다 초기·지방·글로벌펀드 다각적 지원

오영주 장관, 벤처투자업계 간담회  
1.9조 규모 벤처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펀드, AI·기후테크 다각화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 신속 공급"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통해 얼어붙은 벤처투자시장에 마중물을 붓는다.

이를 위해 1월 중 202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조기 공고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2025년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벤처투자 업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중기부는 모태펀드 총 1조원을 출자해 1조9000억원 규모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펀드'를 1조원 이상 조성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기후테크·세컨더리 등 출자분야를 다각화하고, 국가별 선호 투자분야를 고려해 특화 운용한다.

'세컨더리 펀드'란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VC)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한 주식(구주)이나 지분을 매입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방 분야에는 역대 최대 2000억원을 출자한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의 후속조치로,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함께 3년간 1조원 이상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초기투자 위축을 고려해 창업 초기 분야에 전년 대비 25% 증액한 1000억원을 출자한다. 창업초기 분야가 아닌 펀드도 초기투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기투자 의무를 제한한 운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기부

사를 우대 선정한다. 아울러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최대 20%)하고, 관리보수 체계를 전면 개편해 벤처캐피탈의 도전적 투자를 뒷받침한다.

중기부의 2025년 모태펀드 출자방향 설명 이후에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및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중대형 벤처캐피탈, 루키 벤처캐피탈,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등 새로운 벤처투자 참여주체 유입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 ▲바이오 투자 마중물 확대 ▲국내 벤처캐피탈(VC)의 글로벌화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공 액셀러레이터 역할 지원 등을 주문했다.

건의사항은 내부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모태펀드 출자사업 및 향후 정책 이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1조원 규모 모

태펀드 출자사업을 1월 중 조기 공고해 벤처투자 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향후 2년간 구주 매입을 주목적 투자로 한시 인정해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오후엔 전날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오 장관은 "바이오벤처는 매출달성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연구비용은 계속 투입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며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투자가 후기 단계로 쏠림에 따라 초기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 바이오벤처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 3년간 제약바이오 유니콘 3개 육성과 30조원 이상의 기술수출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급한 부분은 적시에 해결하고, 바이오벤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홈쇼핑, '일사천리'로 中企 판로 앞장

일부 제품 일반방송 전환 추가 판매

홈쇼핑이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16일 홈쇼핑에 따르면 자사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판로 지원 프로그램 '일사천리'를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상품추진위원회(상추위), 그리고 1등 농어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상품을 발굴해 총 132개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을 소비자와 연결해 판로 확대에 이바지했다.

일사천리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요릿분말육수', '온제향가뭇' 등은 중소기업 지원 방송이 아닌 일반방송으로 전환해 판로확대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요릿분말육수'는 단 1회 방송으로 주문액이 1억원을 달성했고, '동결건조나물' 회당 주문금액도 9800만원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또한 '울커니마켓'의 레드향은 ▲취급액 1억6000만원 ▲달성률 140% ▲4000개 이상 주문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홈쇼핑 관계자는 "일사천리 사업의 성공 비결은 MD 상담회를 거쳐 지역 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꼼꼼하게 상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앤쇼핑 본사 모습.

품을 선정하고 50대50 비율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소비자 선호도를 동시에 반영하는 결과"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 및 농어촌 지역의 특산물이 단순히 지역 상품에 그치지 않고 홈앤쇼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홈앤쇼핑은 이같은 여세를 몰아 올해도 ▲해풍명가 코다리 ▲울커니 마켓 레드향 ▲장생김온명란 ▲영도특도 영도 반시 꽃감 ▲황도해남고구마 ▲김정배 명인 명란 ▲양구 명품 시래기 방송을 일반방송으로 전환해 판로 개척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메인비즈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왼쪽 4번째부터)박재천 메인비즈협회 명예회장, 우크라이나 오데사 올렉산더 데니센코 주위원,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

## 메인비즈協, 우크라이나 재건 나선다

金 회장 "양국 경제협력 등 노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회원사들과 함께 나선다.

메인비즈협회는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의회와 '메인비즈기업-우크라이나 간 재건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과 오데사 올렉산더 데니센코 주위원을 비롯해 메인비즈협회 박재천

명예회장, 김경수 부회장,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만기 교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경제·무역, 물류·해운산업 등 협력 ▲각종 사회 분야(교육, 헬스케어, 관광, 문화, 스포츠 등) 교류 촉진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교류 ▲경제·투자포럼 추진 ▲투자 프로젝트 공동 참여 기회 모색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승호 기자

## 中企 10곳 중 6곳, 창업 7년 이내 기업

중기부·창진원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482만9000개, 중소기업의 60.1%  
기술기반창업 96.5만개, 전체 20%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사업을 시작한 지 7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숫자, 매출액이 3년 연속 증가했다.

IT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의 약 20%, 종사자 수는 30% 가량을 각각 차지했다.

창업시 가장 큰 장애요인은 '돈'이었다. 시작할 때 필요한 평균 자금은 약 2억원 정도였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수는 전년대비 6.2% 증가한 482만9000개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804만3000

개) 가운데 60.1% 수준이다.

'창업기업'이란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 기업을 의미한다.

지난 2020년 당시 429만9000개이던 창업기업은 2021년 454만9100개로 늘어났다. 이같은 추세는 2022년에도 이어졌다.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기술기반업종의 창업기업은 96만5000개로 전체의 20.0%를 차지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0.2% ↑), 정보통신업(14.4%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6% ↑) 등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기술기반창업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비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386만5000개)은 농업(16.7%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12.4% ↑), 도매 및 소매업(11.0% ↑) 등을 중심으로 늘었다.

창업기업 종사자는 전년대비 16.3% 늘어난 851만5000명(평균 1.8명)으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1895만6000명)의 44.9%에 달했다. 2021년 732만1542명(평균 1.6명)에서 120만명 가량 증가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는 257만8000명(평균 2.7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과학·기술(27.9%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22.5% ↑) ▲정보통신업(18.8%) 종사자들이 늘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1186조1000억원(평균 2억5000만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매출액(3309조원)의 35.8% 수준이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331조5000억원이다.

창업자 83.3%(복수응답 포함)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다고 답했다. 재창업기업은 29.6%로 전년(35.4%)보다 감소했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시행

설치·A/S 신청한 개인 고객들 대상

코웨이가 자사 제품에 대한 설치 또는 A/S를 신청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매니저 도착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고객에게 서비스매니저(설치·A/S 기사) 방문에 대한 정보를 알람톡으로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전달받은 알람톡을 통해 도

착 안내 화면에서 서비스매니저의 출발에 대한 정보부터 현재 위치, 도착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비스매니저들이 기존에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시각화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서비스매니저의 업무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했다. /김승호 기자

gift

# 설날 마중

\*\*\*

## 설선물 사전예약

감사의마음을 전합니다

산지직송으로 **능수한우암소세트** 제품과  
**프리미엄 솔트에이징** 육류, **프리미엄 과일** 까지  
 명절선물세트의 모든 것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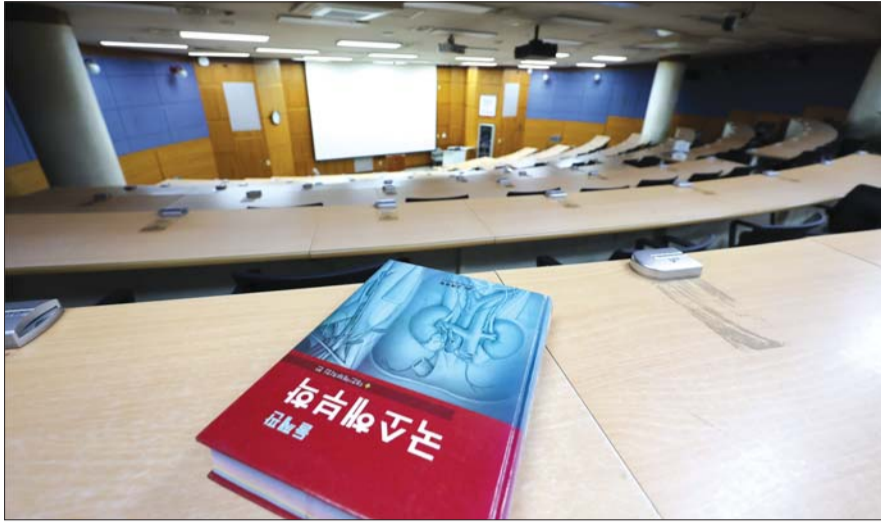


# 올해 의대 1학년 '최대 7500명' 전망... 내달까지 대책 마련

정원 확대 발표에 휴학한 1학년생 복학할 경우 신입생과 수업 받아야  
교육부, 의대국 신설해 대책 협의 대학별 상황 맞춰 해결책 마련 계획  
내후년 정상적 실습수업 불가능 우려

지난해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했다가 복학하는 의대생들과 올해 신입생 등 1학년 인원이 최대 7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부가 오는 2월 초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보이면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휴학한 1학년생 3500여명이 수업에 돌아올 경우 올해 신입생 4000여명을 합해 최대 7500명 가량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개별 학교 맞춤형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휴학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7일 대구 한 의과대학 강의실에 의학 서적만 놓여있다 /뉴시스

형으로 지원해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의대 교육여건 지원을 위해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을 신설하고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다. 총 18명으로 구성된 의대국은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 의대의 전반적 여건 개

선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팀별 의대 4~5곳을 맡아 대학별 상황에 맞춰 대책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월 내로 대학과의 대 교육 관련 상의를 마치고 2월 초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휴학 여파로 올해 의대 1학년이 약 7500명에 달하지만 주로 교양 수업을 듣는 예과 1학년인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올해 의대 교육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과 1학년 수업 대부분은 교양 과목으로 의료 관련 기초 과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의대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도 지원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국고 5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아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내놨다. 이 중 올해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수 총원 등 교육혁신 지원 과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을 투자한다.

다만 의대 교육 여건을 두고 가장 우려되는 시기는 내후년이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본과 1학년이 되는 2027년부터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실습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정원 과

밀'로 정상적인 실습수업이 불가능하다 주장하는 시기도 바로 이 시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실습수업을 받는 예과 2학년부터 본과 과정 교육 대책과 관련해서는 의대생들의 복귀 규모를 파악한 뒤 3월에 대학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정갈등 해소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정했다.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으로 대학 입학 전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전년도 4월 말까지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변경 신청 기한이 10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성인 문해능력 온라인 진단 서비스 운영

교육부, 올해 70.4억 투입해 지원  
성인 3.3%, 읽기·쓰기·셈하기 못해  
내달부터 자가진단 서비스 정식 운영

전국적으로 읽기·쓰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이 14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정부가 2월부터 성인들의 기초 문해능력을 온라인으로 직접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낮은 문해능력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총 70억4400만원을 들여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 문해교육 프로그램과 디지털에 대한 이해·활용 등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

한 18세 이상 성인 인구는 약 146만명이다. 전체 성인인구의 3.3% 해당된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능력 수준을 측정하고,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제1차 '성인디지털문해능력조사' 결과를 오는 9월 공표할 예정이다. 이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성인의 디지털 문해능력을 1~4 수준으로 구분한다.

2월부터는 국가문해교육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초 문해능력 자가진단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성인 누구나 자신의 기초 문해능력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문해능력을 진단하면 응답자의 문해력 수준을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학습자료와 교육과정을 추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건강·안전 등 일

상 속 가정·여가·공공·경제 생활에 필요한 문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생활 문해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비문해·저학력 성인학습자는 금융·교통·건강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 투표, 금융 등 여러 지식과 정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한글햇살바스' 운영은 기존 3개소에서 2개소 추가한다. 거주지 내 복지관 등에서 무인안내기(키오스크)나 스마트폰 배달 앱을 활용한 음식 주문 등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기술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현장실습도 본격 도입된다.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은행, 매장 등 학습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현장실습과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2025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 선정"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10만원 지급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

올해부터 안양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게 입학지원금으로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무상으로 보편 지급된다.

안양시는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난임극복 지원 등 '2025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제도를 많이 신설했다"며 "많은 시민이 더 좋아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이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로

지원된다. 또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으로,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월 1만4000원) 지원한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30만원씩 지급해온 '보훈명예수당'을 36만원으로 인상하여 연간 1인당 144만원 지급한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 홍보체험관 운영시간을 확대하여 2월부터 주 2회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확대 운영하여, 인덕원역~안양역을 오가는 야간노선(자정~오전 2시)은 1월부터 기존 2회에서 4회로 증편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올해 하반기 171세대 공급할 예정이며,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안양(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서울시,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입체공원 도입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  
시민제안 두 건, 즉각 실행 나서

이제 도심공원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지고, 농수산물마켓도 열 수 있다.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판매행위가 문화·예술행사 개최 때는 일부 허용되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 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 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 인정하는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서울시장 이 직접 기획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두 건을

즉각적으로 실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관련 법에 따라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사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가 금지돼 푸드트럭이나 직거래 장터 등의 운영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규제를 풀어 달라는 시민 요청에 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판로 개척을 위해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 이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시민들은 자연 속에서 문화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두 번째 철폐안은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자연 지반의 공원만 인정하던

것을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의 입체 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토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5만㎡ 또는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공원녹지법'에 따라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는 지역 내 녹지가 충분히 조성돼 있음에도 법적 의무를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던 기존 방식이 주택부지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공원도 허용키로 했다고 시는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0

## 서울시, 2.7兆 투입해 일자리 41만개 제공

올해 상반기 중 80% 조기 선발

서울시는 올해 직·간접 일자리 제공에 2조7000억원을 투입해 청년부터, 중·장년,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 41만개의 80%(약 33만개)를 조기에 선발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기업이 원하는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한 신산업 직업훈련 교육을 확대한다. '청년인턴 직무캠프', '매력일자리' 등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일 경험 제공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AI·핀테크·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 취업의 발판을 놓아주는 '매력일자리'(3500개)와 우수 민간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실무 중심 직무교육과 인턴십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인턴 직무캠프'(270명)를 운영한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돕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금년 총 1만2980명 규모로 시행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중·고령층 취업 지원에도 나선다. 중견·중소기업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경력진단, 직무실무교육, 1:1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일자리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 “불닭볶음면, 대체불가”... 삼양식품, 美 알파세대 사로잡다

(2010년대 초~2020년대 중반 태어난 세대)

누머레이터, 지난해 브랜드 결산 알파세대 선호 최고 브랜드 선정 오왈라·닥터 스콰치 등 이름 올려 작년 3분기, 전년 연매출 넘어서 찾아가는 마케팅·SNS전략 주효

삼양식품이 '미국 2024년 알파 세대 (2010년대 초~2020년대 중반에 태어난 세대)가 선호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선정됐다.

16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누머레이터(Numerator)는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브랜드를 결산하며, '알파 세대가 선호하는 최고의 브랜드' 1위는 삼양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누머레이터는 ▲가구 침투율 ▲매출 성장률 ▲소셜 버즈량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순위를 매겼다.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을 중심으로 알파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순위권에는 ▲미국 인기 텀블러 ‘오왈라’ ▲천연 비누 ‘닥터 스콰치’ ▲온라인게임 ‘포트나이트’ ▲과일 아이스크림 ‘조니 팝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을 전개하는 외국인의 모습.

/삼양식품

삼양식품은 누머레이터의 ‘가장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 부문 조사에서는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누머레이터는 “삼양은 틱톡의 ‘불닭 챌린지’ 바이럴 효과에 힘입어 델리다(핫소스), 후이퐁푸드(스리라차소스)와 함께 상위권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양식품의 미국법인인 삼양아메리카는 2024년 1~3분기 기준 전년 대비 126% 증가한 약 2800억원(1억 90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3분

기 매출만으로 2023년 전체 매출(약 1600억원)을 훌쩍 넘어선 셈이다. 이는 불닭볶음면이 맛있게 매운 맛을 지닌 ‘대체 불가능한 제품’으로 자리를 잡은 데다, 월마트·코스트코 등 주요 유통업체 입점을 강화한 점이 반영됐다.

여기에 삼양식품은 소비자를 직접 찾아가는 글로벌 마케팅을 펼친 뒤 SNS상에서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5월 생일 선물로 까르보불닭을 받고 감

격해 우는 소녀의 영상이 틱톡에서 조회수 1억 회를 넘자 직접 집을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는 깜짝 파티를 열어준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덴마크 리콜 조치 해제 이후 연 ‘불닭 스파이시 페리 파티’, 세계 5개 도시에서 약 4만여 명이 참여한 ‘스플래시 불닭’ 캠페인 등이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도 이번 조사 결과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삼양식품은 분석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소비자와 함께 소통하는 마케팅 전략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글로벌 알파 세대의 자발적인 소셜 버즈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누머레이터는 브랜드, 마케팅, 상품 및 판매 데이터 등을 통합해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리서치 기업 중 한 곳이다. 1990년 설립해 전 세계에 2500명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만 명 이상의 미국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된 패널을 기반으로 소비자 조사 분석에 나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리아 “모짜렐라버거 맛보세요”

롯데리아가 16일 서울 용산구 롯데리아 속대입구점에서 ‘모짜렐라 버거’의 10주년을 맞아 스타 셰프인 ‘나폴리맛피아’ 권성준 셰프와 협업해 ‘나폴리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2종을 출시했다.

/손진영 기자 son@

## 교촌치킨

### 혼밥·혼술족 겨냥 ‘싱글시리즈’ 출시

국내 대표 상생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1인 가구 및 혼밥·혼술을 즐기는 남녀노소 모두를 겨냥한 신메뉴 ‘싱글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촌이 새롭게 선보인 ‘싱글시리즈’는 교촌의 첫 소단위 메뉴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 소비 트렌드 및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출시됐다. 혼자서도 부담없이 치킨을 즐길 수 있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통통하고 쫄깃한 육질이 특징인 태국산 왕에 교촌의 시그니처 소스를 입힌 이번 신메뉴는 교촌의 시그니처 소스인 간장 소스로 맛을 낸 ▲교촌싱글왕과 국내산 청양 홍고추를 착즙해 갈끔한 매운맛이 일품인 ▲레드싱글왕 총 2종으로 구성됐다.

/신원선 기자

## GS샵

### ‘슬리포노믹스’ 확대 숙면 관련상품 강화

GS샵은 슬리포노믹스 추세에 맞춰 숙면 관련 상품군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슬리포노믹스(Sleep + Economics)란 수면과 경제학의 합성어로, 수면 관련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닥터린 멜라바인’은 지난해 기준 4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 ‘닥터린 멜라바인’은 토마토에서 추출한 식물성 멜라토닌에 비타민, 마그네슘, 허브 추출물 등을 배합한 수면 영양제다.

침구제품군 수요도 증가했다. GS샵은 지난해 연간 침구 매출은 2023년 대비 50% 상승했으며 특히 침구 브랜드 ‘더플레오’는 같은 기간 동안 매출이 28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GS샵은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숙면 관련 상품군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안재선 기자

# CJ올리브영, 경산 물류센터 가동... 호남권 공급망 강화

영남·제주 등 600여개 매장 공급 초당 10개 이상, 하루 100만개 출고 최첨단 설비 도입 물류 90% 자동화

CJ올리브영이 영남권에 대형 물류 거점을 마련하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강화한다.

CJ올리브영은 이달부터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올리브영 경산 물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경산 물류센터 추가로 올리브영은 전국 1300여 매장에 대한 물류 공급 체계를 이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양지센터는 전체 60%에 달하는 수도권 매장 물류와 온라인물 배송에 집중하고, 경산센터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영

남, 제주, 충청, 호남권 600여 개 매장 물건 공급을 맡는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경산센터 규모는 연면적 3만8000제곱미터(㎡)로 축구장 6개 수준이다. 경산센터가 하루 동안 소화 가능한 출고량은 100만 개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초당 10개 이상의 상품을 출고할 수 있다. 또 올리브영은 기존 대비 생산 능력을 50% 이상 높여 하루 최대 300만 개의 상품을 전국 매장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산센터는 올리브영에 최적화된 최첨단 설비와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물류 과정의 90%를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산센터는 선반 사이를 오가며 상

품을 쌓고, 필요한 제품을 골라내는 등 지게차 역할을 대신하는 ‘에어롭’, 입출고 상품을 싣고 작업자에게 전달하는 ‘자율 이동 로봇’, 박스 단위 고중량 물류를 운반하는 ‘다팔렛타이저’ 등을 활용해 작업자의 수작업을 대폭 줄여 생산성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날개 단위 상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개별 선별 시스템’과 ‘디지털 선별 시스템’, 소포장 상품을 운반 벨트에 투입해 주는 다관절 팔을 탑재한 ‘날개 피킹 로봇’ 등이 작업 효율성을 높인다.

경산센터의 이러한 물류 자동화 시설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하기도 했

다. 화장품을 주력 상품으로 취급하는 제조·유통 기업 가운데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은 올리브영이 유일하다.

이처럼 올리브영은 ‘물류 인프라’가 K뷰티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올리브영은 지난 2024년 8월에는 올리브영 글로벌몰(역직구몰)과 ‘바이오 힐보’ ‘웨이크메이크’ 등 올리브영 자체 브랜드 물류 전반을 담당하는 안성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연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먼데이 등 글로벌 쇼핑 기간 안성센터는 수출 전용 라인을 기존 대비 60% 이상 활성화해 급증하는 해외 수요에 적극 대응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롯데마트 ‘그로서리 특화’ 천호점 오픈

채소 매장에 ‘끝장상품존’ 운영

롯데마트가 롯데몰 수지점에 이어 6년 만에 롯데마트 천호점을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천호점은 지하철 천호역 인근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1374평 규모로 조성됐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천호점은 도심형 실속 장보기 매장으로 기획됐다. 매장의 80%를 신선 및 즉석 조리 식품 중심의 그로서리 상품과 특화 매장으로 구성했으며 비식품 매장은 자체 브랜드와 인기 브랜드 상품으로 운영 효율성을 강화한다.

먼저, 롯데마트 천호점은 실속형 장

보기에 특화된 매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채소 매장에서 ‘끝장상품존’을 운영한다. 연간 판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구매 빈도가 높은 채소를 업계 최저가로 제공한다. 상품기획자(MD)가 직접 경매에 참여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일반 상품 대비 약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비식품 매장에서는 ‘오늘좋은 습인숍’을 통해 효율적인 쇼핑 경험을 제안한다. ‘오늘좋은 습인숍’에서는 롯데마트의 자체 브랜드 상품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인지도 높은 브랜드의 상품이라도 효율이 낮은 상품은 과감히 줄이고, 자체 브랜드 상품을 중심으로 균일하게 특화존을 구성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G마켓, 하이베러와 업무협약 체결

연내 온라인 전용상품 개발·선판매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 플랫폼 G마켓이 위생용품 제조·판매 기업 하이베러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G마켓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베러의 연내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하고 선판매하며 단독 마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베러는 여성용품 브랜드 ‘시크릿데이’,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 ‘비다웰’과 ‘정성’ 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하이베러의 다양한 브랜드와 상품군을 활용해 생활용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 인기 제품의 단독 상품을 선보일 계획



이민규 G마켓 영업본부장(오른쪽 4번째)과 권금주 하이베러 대표이사(오른쪽 5번째)가 직원들과 함께 업무제휴협약 체결을 기념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G마켓

이라는 게 G마켓 측 설명이다.

한편, 하이베러는 G마켓과 옥션을 통해 판매 채널을 확보함과 동시에 매출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마케팅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안재선 기자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가 2025 새시즌으로 개막했다. 지난 15일 열린 개막전에서 관중들이 LCK경기를 응원하고 있다. /LCK

# ‘피어리스 드래프트’ 방식 적용 DRX·DN 프리क्स, 개막전 승리

## 2025 LCK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진행  
최종우승팀 ‘퍼스트 스탠드’ 출전  
정민성 감독, 첫승... 업계 이목집중

국내 최고의 e스포츠 대회 리그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가  
2025 새시즌으로 개막했다. LCK 10개  
팀은 약 6주간 경쟁에 돌입한다.

LCK컵은 오는 23일까지 서울 종로  
구 롤파크 LCK 아레나에서 진행된다.

2025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챔피언  
뱅크 방식인 ‘피어리스 드래프트’로만  
치러진다. 같은 조에 편성된 팀들의 성  
적 합산이 플레이오프 직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서는 순위를  
놓고 경쟁하던 팀들이 그룹 대항전을  
치르는 동안에는 연습을 도와주고 응  
원하는 등 단합하는 모습도 기대된다.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으로 나뉘어진  
두 팀은 그룹 대항전 방식으로 3주 동  
안 대결한다.

지난 해 서머 성적을 기준으로 1위팀  
과 2위팀인 한화생명e스포츠와 젠지가  
각각 바론 그룹과 장로 그룹의 대표로  
같은 편에 속할 팀을 한 팀씩 먼저 선정  
했다. 상대 그룹의 팀들과 3전 2선승제  
싱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대결을 펼  
친다. 최종 우승팀은 2025년부터 새로  
만들어지는 국제대회인 퍼스트스탠드  
에 LCK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 15일 개막전에서는 DRX vs O  
K저축은행 브리온, DN 프리क्स vs 농  
심 레드포스 경기가 진행됐다.

우선 1경기 DRX vs OK저축은행  
브리온 경기에서는 OK저축은행이 1  
세트를 압도적으로 승리해 나가고 있  
었지만 결국 3세트에서 패배를 기록  
했다.

최우범 감독은 “3세트는 게임이 터  
지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좀 못한 거 같  
아 아쉽다”면서 “우리가 게임을 이기  
는 게 맞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후  
DRX가 라인을 다 버리고 바텀으로

오는 게 보이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  
고 3대5 상황서 한 타가 열렸다”고 설  
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연습 때도 계속  
나온다. 성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걸 고치지 못하면 계속 나올 거다. 그러  
다 보면 선수들끼리 불신도 쌓일 수 있  
다고 본다.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제  
가 잘해야 할 거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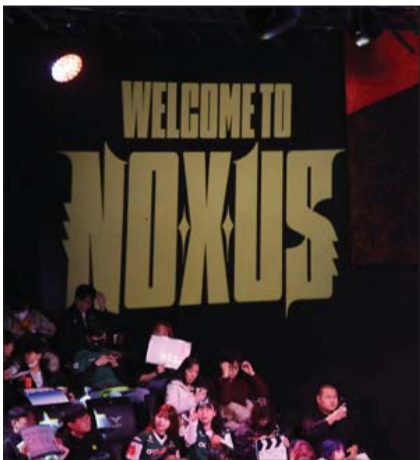
2경기 DN 프리क्स vs 농심 레드포스  
대결도 3세트까지 진행됐다. 해당 경기  
는 긴 시간 끝에 DN 프리क्स가 승리했  
다. 해당 승리는 LCK경기의 첫승이라  
의미가 크다.

DN프리क्स 정민성 감독은 경기 후  
“최근에 선수들이 연습을 잘해줬다. 느  
낌이 좋았다. 2세트 밴픽 실수가 아쉽  
다. 제가 잘했으면 2-0이 나왔을 것”이  
라고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정 감독은 정식 감독직을 달고 첫 승  
을 챙겼다는 점에서 업계 이목이 집중  
됐다.

정 감독은 “연습 과정이 좋았다. 그  
래도 오늘 게임 질 수 있다고 생각했  
다. 지게 되면 피드백 잘해야겠다고 판  
단했다. 첫 경기부터 이기게 돼서 선수  
들에게 고맙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한미정밀화학-우정바이오, CDMO 업무협약

(위탁개발생산)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 주력  
바이오 벤처기업 성장 지원

한미그룹의 원료의약품 전문 계열사  
한미정밀화학이 오픈이노베이션 바이  
오 연구 클러스터 기업 우정바이오와  
바이오 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위  
탁개발생산(CDMO)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

한미정밀화학이 우정바이오가 ‘바  
이오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CDM  
O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바이오벤처기  
업의 혁신적 의약품 개발 지원을 위해  
힘을 모은다. 높은 잠재력을 갖춘 바이  
오벤처기업들을 지원해 국내 바이오산  
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번 협약으로 한미정밀화학은 우  
정바이오의 신약 클러스터에 입주한

20여개 바이오 벤처 기업의 연구개발  
에서부터 상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  
원한다.

한미정밀화학은 고순도 신약원료물  
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연구개발(R  
&D) 역량을 필두로, 글로벌 GMP 규  
정에 맞춘 품질관리시스템과 의약품  
개발부터 제조까지 통합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CDMO 역량을 갖춰 국내외  
주요 제약 바이오기업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정바이오는 한미정밀화학이라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CDMO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바이오 연구개발과 상업  
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약 클러스터 ‘랩클라우드’를 중심으  
로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혁신 신약 개  
발을 위한 전문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

공하며 신약개발 생태계 구축에 힘쓰  
는 의지다.

한미정밀화학이 우정바이오는 추후  
바이오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및 맞춤형 CDMO 상담회 등의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며 바이오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미정밀화학 사업본부 박철현 이사  
는 “앞으로도 다채로운 기업들과 협업  
을 강화하며 저분자 화합물은 물론, 합  
성펩타이드 CDMO분야에서의 역량  
또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정바이오 천병년 대표는 “비임상  
임상수탁기관(CRO) 사업역량 강화와  
함께 바이오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량  
도 한층 확대하며 동반성장 하는 한 해  
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

# 최준호 부회장,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참석

(패션그룹형지)

패션업계 유일 초청

패션그룹형지는 최준호 총괄부회장  
이(사진)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DC에  
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  
임식에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가스텔바  
작 대표이사 자격으로 참여하게 된 최  
부회장은 패션 업계 인사로는 유일하  
게 취임식 초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취임식 참석 후 최 부회장은 현지  
정·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가진 뒤, 21  
일 뉴욕으로 이동해 글로벌 섬유·패션  
전시회인 ‘텍스월드 USA 2025’를 참  
관할 예정이다. ‘텍스월드’는 세계 최  
대 섬유·패션 소비시장인 미국 뉴욕에



서 열리는 섬유 전시  
회로, 매년 우수한 섬  
유 소재 기업들이 수  
출 시장 개척과 해외  
마케팅 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각국의 경쟁력 있는 섬  
유 업체들의 현황을 살피고, 한국섬유  
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한  
국관도 참관할 계획이다.

한편, 최 부회장은 2021년 가스텔바  
작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패션그룹  
형지 총괄부회장을 겸하며 해외 진출  
및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지씨셀, 24일 ‘이문셀엘씨주’ 연구결과 발표

(자가유래 항암면역세포치료제)

ASCO GI 참가... 이정훈 교수 발표

지씨셀이 오는 24일 미국 샌프란시  
스코에서 열리는 ‘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 2025)’  
에서 자사가 개발한 자가유래 항암면  
역세포치료제 ‘이문셀엘씨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ASCO GI는 소화기암 분야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학회 중 하나  
로,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을 비롯해 각  
계 전문가 및 관계자 5000여명이 연구  
결과와 치료법 등을 교류하고 논의하

는 국제 학술대회다.

이번 발표는 연구를 주관한 서울대  
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 이정훈 교  
수가 맡는다.

발표는 ‘담관암, 간세포암, 췌장암에  
대한 새로운 면역 요법 접근법’ 세션에  
서 ‘간세포암에서의 보조적 사이토카  
인 유도 살해 세포 면역 요법: 무작위  
대조 시험의 연장 추적 연구 및 치료 후  
면역 세포 프로파일링’이라는 주제로  
2015년에 진행된 임상 3상 시험의 9년  
연장 추적 연구 결과인 장기 유효성 데  
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 미모 바이 마몽드, 다이소 인기 브랜드 등극

4개월만에 누적 판매 100만개 돌파

아모레퍼시픽은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 바이 마몽드’가 균일가 생활용  
품점 다이소에 입점한 후 4개월 만에  
누적 판매 100만개를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지난 2024년 9월 다  
이소에서 공개한 ‘미모 바이 마몽드’는  
잘과 세대의 주요 피부 고민에 근본적  
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니멀 클린 뷰  
티 브랜드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브랜드 주요

제품은 다이소 입고와 동시에 품절되  
면서 재입고 문의가 쇄도했다. 또 각종  
SNS에서는 제품 효능에 대한 후기와  
입소문이 이어졌고, 그 결과 해당 제품  
은 ‘다이소물 SNS 핫템’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로지-히알론 리퀴드 마스크’  
는 판매량이 가장 높은 브랜드 대표 제  
품이다. 이 제품은 마몽드만의 핵심 원  
료인 꽃에 효능 성분을 결합한 것이 특  
징이다.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전  
달하고, 묵은 각질은 부드럽게 정리해  
주는 기능을 갖췄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배스킨라빈스

# ‘춘식이 복조리백’ 사전예약 이벤트

SPC 배스킨라빈스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를 활용한 복조리백 사  
전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춘식이 복조리백’은 면 혼방 재질로  
어깨에 가볍게 멜 수 있는 솔더백이다.  
가방 양 옆의 끈을 당기면 복조리 형태  
의 가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가방 중  
양에는 고구마를 한 입 베어 문 ‘춘식  
이’ 캐릭터를 넣어 포인트를 줬다.

배스킨라빈스는 ‘춘식이 복조리백’  
출시를 기념해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23일까지 해피포인트·해피



SPC 배스킨라빈스가 ‘춘식이 복조리백’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SPC

오더 앱 또는 카카오톡 예약하기를 통  
해 아이스크림 쿠퍼 사이즈 이상 제품  
과 함께 구매 시 1000원 혜택이 적용돼  
4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행  
사가 종료된 24일부터는 쿠퍼 사이즈  
이상 구매 시 5900원에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10<sup>th</sup>  
ANNIVERSARY  
모짜렐라인더버거

LOTTERIA™



토마토 바질



발사믹 바질

나폴리 맛피아 모짜렐라 버거

버거,  
맛있게  
손봤다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유한양행, 생명존중·돌봄가치 실천 가정에 '유일한상' 수여

13명 자녀 출산한 김석태·엄계숙 부부  
11명 자녀 입양한 김상훈·윤정희 부부  
창업주 유일한 박사 송고한 정신 되새겨

출산과 입양을 통해 10명이 넘는 자녀를 키워낸 부부가 15번째 '유일한상'을 수상했다.

유한양행은 지난 15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유한양행은 창업자고(故) 유일한 박사의 뜻을 기리며 저출산 시대, 출산과 입양을 통해 생명존중과 돌봄의 가치를 실천한 두 가정을 공동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날 유한양행은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석태·엄계숙 부부와 김상훈·윤정희 부부에게 상금과 상패, 금메달을 각각 수여했다.

유한양행에 따르면, 김석태·엄계숙 부부는 13명의 자녀 출산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리고 출산 장려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부부는 인성 교육을 중



지난 15일 웨스틴조선서울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유일한상 시상식'에서 김석태·엄계숙 부부(왼쪽부터),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 윤정희·김상훈 부부가 유일한상 수상을 기념하며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유한양행

시해 나눔과 협력, 책임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모든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김석태·엄계숙 부부의 삶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유한양행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상훈·윤정희 부부는 11

명 자녀를 입양해 사랑과 헌신으로 국내 최다 입양가정을 이뤘다. 모든 자녀가 따뜻한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동시에 빈민 아동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기부 및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또 부부는 한마음으로 신장을 기증하며 생명나눔에도 앞장섰다. 김상훈·윤정희 부부의 삶은 입양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대하고 포용성 있는 사

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중수 유한재단 이사장 등으로 구성된 유일한상 심사위원회는 "저출산에 기인한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김석태·엄계숙 부부와 김상훈·윤정희 부부는 생명의 존중, 가정의 화목, 공동체의 변연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조옥제 유한양행 사장은 "앞으로도 유한양행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의 뜻을 계승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찾아 수상자로 모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일한상은 지난 1995년 유일한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제정된 시상 제도다. 유한양행은 2년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과 공로를 쌓은 인사를 선정해 시상하며, 일평생을 모범적인 기업가, 교육자, 독립운동가의 길을 걸었던 유일한 박사의 송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LG U+, 2만개 통신용어·문구 순화

LG유플러스가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해 온 '고객 언어 혁신' 활동의 결과로 총 2만개의 통신용어와 문구를 검수해 순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고객 언어 혁신' 활동은 고객이 상담을 받거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 한자식 어투 및 외래어, 공급자 관점의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과 고객 관점의 언어로 순화하는 캠페인이다. /LG U+



## NH농협은행, '손 편지 보내기' 캠페인

NH농협은행은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까지 임직원 간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손 편지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임직원 간 손 편지 보내기' 캠페인은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윤리공감우체통을 통해 감사편지를 전하는 행사이다. /NH농협은행

# 에쓰오일, 이웃사랑 성금 20억 전달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에쓰오일이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에쓰오일은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서 성금 20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쓰오일의 이웃사랑 성금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 후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는 지난 2004년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동안 모은 성금은 총 270억원에 달한다.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CEO는 "2025년 새해에도 에쓰오일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나눔'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중앙언론동문상'에 윤휘중·김종균 선정

윤휘중 본지 편집국장 등 시상

중앙대학교 언론동문회(회장 이종훈)는 '2025년 중앙언론동문상' 수상자로 윤휘중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편집국장 겸 김중균 YTN 보도본부장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흥준의 시그니처 대표는 중앙언론동문상 특별상을 받았다.

중앙대 언론동문회는 지난 15일 중앙대에서 신년하례회를 열고 중앙언론동문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중앙대 심리학과 출신인 윤휘중 편집국장은 1994년 전자신문 공채 10기로 입사해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아이뉴스24를 거쳐 파이낸셜뉴스에서 산업2부장, 지식과학부장, 정보미디어부장을 지냈다. 이후 메트로신문으로 옮겨 산업부장, 유통&라이프부장, 정치경제부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2월 편



중앙대언론동문회는 지난 15일 중앙대에서 열린 신년하례회에서 '중앙언론동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윤휘중 메트로신문 편집국장(가운데), 김중균 YTN 보도본부장(오른쪽),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대언론동문회

집국장으로서 취임했다.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종균 보도본부장은 YTN에서 정치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보도본부장에 선임됐다.

한편 1983년 제정된 중앙언론동문상은 신문·방송·광고·출판 등 부문에서 공로가 큰 동문을 수상자로 선정한다. /이현진 기자 hji@

# 푸본현대생명 매칭그랜트 성금 기부

푸본현대생명은 임직원과 회사가 '1대1 매칭그랜트'로 조성된 성금을 지역사회 소외계층지원을 위해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임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에 회사도 동일한 금액으로 매칭해 총 4685만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기부금은 영등포구청의 사업을 통해 독거어르신과 결혼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 효성티앤씨, 농어촌 ESG 실천 우수기업 선정

상생협력기금 산업부장관 표창도 수상

효성티앤씨가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효성티앤씨는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이 주최한 '2024 농어촌 ESG 대상 시상식'에서 농어촌과 상생협력 활동을 인정받아 '농어촌 ESG 실천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상위 10개 기업에만 주어지는 '농어촌 ESG 실천 우수기업'으로 추가

선정돼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기금 유공자 포상으로 산업부장관 표창도 수상했다. 수상자는 효성티앤씨 김은비 PM이다.

효성티앤씨는 함안, 구미 등 지역 마을회관, 학교, 아동센터에 리사이클 섬유 리젠으로 제작한 의류와 가방을 기부하고, 사업장이 위치한 대구 달성읍 지 인근에서 지역 환경 축제를 후원했다. /차현정 기자

# KIAT,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청구 등 만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표 ▲원문정보공개 ▲정보공개청

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를 평가했다.

KIAT는 이 중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청구 처리, 고객관리 분야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또 고객 맞춤형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대국민 모니터링단 운영을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정보공개 역량 강화 교육, 기관 경영정보 100% 개방형 체계 구축, 기관장 결재문서(원문) 공개율 제고 노력도 기울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인사

- ◆부산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박상후 △정보화본부장 최윤호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 조진우 △소재부품-에너지연구소장 겸 스마트 에너지-머신연구본부장 이상학

## 부음

- ▲좌시열씨 별세, 권정근(롯데호텔앤리조트 마케팅본부장)씨 장모상 = 15일, 제주그랜드부민장례식장 9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장지 제주시 양지공원. 064-742-5000.

## BNK부산은행,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

BNK부산은행은 부산은행 본점에서 '꿈담기(꿈을 담아내는 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꿈담기' 진로체험은 지난 2019년 체결된 부산은행과 부산시교육청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역 사회 미래 인재양성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BNK부산은행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5 | 해질 / 17:39

1월 17일 (금) 음력 : 12월 18일

수도권 날씨 -5 ~ 5°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0/4, 동두천 -8/5, 가평 -10/5, 파주 -10/4, 서울 -5/5, 양평 -8/4, 인천 -4/3, 수원 -4/4, 용인 -4/4, 평택 -7/4, 백령도 0/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원광디지털대학교  
WONKWANG DIGITAL UNIVERSITY

당신이 꿈꾸는  
원더풀 라이프

# 원광시편 원더시대



원광디지털대학교  
2025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안내

1차 모집기간  
2024.12.01.(일) ~ 2025.01.10.(금)

2차 모집기간  
2025.01.22.(수) ~ 2025.02.14.(금)

모집학과

웰빙건강학부 한방건강약선학과, 한방미용예술학과, 요가명상학과, 웰니스문화관광학과

한국문화학부 전통공연예술학과, 한국복식과학학과, 차문화경영학과, 한국어문화학과, 동양학과, 원불교학과, 태권도스포츠재활학과

실용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언어치료학과, 경찰학과, 부동산학과, 얼굴경영학과



# 트럼프 시대, 와인의 운명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트럼프 와인러리 블랑 드 블랑, 트럼프 와인러리 샤르도네, 트럼프 와인러리 메리티지, 트럼프 와인러리 카베르네 소비뇽 / 금양인터내셔널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하나 뿐인 딸 첼시의 결혼식에 트럼프 와인러리에서 만든 와인이 쓰였다. 미국 45대 대통령을 지내고 47대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 그 도널드 트럼프의 와인러리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두 가지 의문이 바로 생긴다. 첫째는 클린턴이 소중한 딸 결혼식에 왜 하필 트럼프 와인을 썼을까, 두번째는 술 한 잔 안하는 트럼프가 무슨 와인러리냐.

문장을 이렇게 바꾸면 첫번째 의혹은 풀린다. 첼시 클린턴의 결혼식에는 트럼프가 사들이기 전인 클루기 와인러리의 와인이 쓰였다. 결혼식은 2010년 트

럼프가 와인러리를 인수한 것은 2011년이니 말이다.

이번엔 두번째 의문을 풀 차례다. 외모나 언행으로는 말술을 마시게 생겼지만 트럼프는 철저한 금주자로 유명하다. 방한 당시 국민 만찬을 가졌을 때도 트럼프의 잔에는 와인이 아닌 플라가 담겨 있었다.

와인러리를 와인보다 부동산의 가치로 인식하면 이해가 빠르다.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트럼프 와인러리는 원래 클루기 와인러리였다. 사업

을 크게 확장하려던 찰나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매년 수십만 달러의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클루기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트럼프는 와인러리를 시장가치의 10%만 주고 사들여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한다. 사실 진짜 사고 싶었던 물건은 와인러리 내에 있는 앨버말 저택이었기 때문이다. 폐가같은 주변 환경에 매수하겠다는 이가 나타나지 않자 트럼프는 은행에 저당잡혀 있던 저택을 원래 가격의 15분의 1 수준에 사들이는데 성공했다. 트럼프는

저택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해 호텔로 바꾸고, 클루기 와인러리는 트럼프 와인러리로 재탄생했다. 지금은 '대통령 와인'이라는 별칭과 함께 버지니아 최대의 와인러리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수입 중이다. 금양인터내셔널은 트럼프 와인 가운데 '트럼프 메리티지'와 '트럼프 블랑 드 블랑', '트럼프 샤르도네', '트럼프 카베르네 소비뇽' 등을 선보였으며, 이미 입소문을 타고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다.

트럼프 와인은 품질 사태를 빚고 있지만 사실 오는 20일(현지 시각)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와인업계 표정은 어둡다.

먼저 관세 이슈다. 트럼프는 공약으로 모든 수입품에 최고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내걸었다. 전 임기에도 관세로 무역 갈등을 부추겼던 트럼프다. 2020년 유럽연합(EU)과 마찰을 빚으면서 프랑스 와인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수입 와인이 비싸지면 미국

와인러리가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리건주 한 와인러리 관계자는 "당시에도 무리한 관세 부과에 따른 와인러리들의 이익은 없었다"며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미국 와인업계의 수출을 사실상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유리병과 오크통 등 수입된 물품에 의존하는 미국 와인 산업의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라는 관세를 공언했던 점을 감안하면 중국산 와인병은 가격이 큰 폭으로 뛴 수밖에 없다.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도 우려되는 부문 중 하나다.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대부분이 이민자다. 와인러리들이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해 생산 비용이 오르는 것은 물론 수확도 지연될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공부, 지식 넘어 인격과 영혼 정화”

‘공부하는 삶’은 ‘배움’이라는 행위를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여긴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가 평생 배우고 익히면서 얻은 공부에 필요한 정신, 조건, 방법 등을 살뜰하게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신토마스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여서 그런지,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자못 경건하다. 책의 첫머리에서 세르티양주는 공부하는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닌 신의 부름에 유순하게 복종하는 삶, 즉 공부라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전제한다.

그는 “공부하는 삶은 금욕과 의무를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하려면 진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 진리는 자신의 총박만을 섬긴다”고 말한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공부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와 인풋, 아웃풋.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펴고 읽으면 그게 공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저자에게 공부는 신성하고 경건한 행위이기, 제례 의식이 필요하다. 인격 수양이 바로 그것.

세르티양주는 “인격적 자질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에 앞선다. 지적 능력은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지적 능력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그 효과의 본질이 결정된다”면서 소명에 따라 참된 것과 선한 것을 추구할 것을 촉구한다. 책에는 “인격이 난파된다면 위대한 진리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에 참된 것을 먹으면 양심이 밝아지고, 선한 것을 보살피면 앎을 얻는다”, “사유가 순수하려면 영혼이 순수해야 한다” 등 바람직한 선을 항상 가슴에 새겨두라는 가르침이 자주 등장한다.

마음 정화 후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다. 세르티양주는 천재 저자들을 가까이하라고



#### 공부하는 삶

앙토냉 질베르 세르티양주 지음/이재만 옮김/유유

조언한다. 호메로스, 소포클레스, 베르길리우스, 단테, 셰익스피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등 정신의 귀족들이 남긴 기록을 빨아들이라는 것.

세르티양주는 “성인들의 성찬식은 영성적 삶을 뒷받침한다”며 “사람들의 열렬한 숭배를 받아 영원히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연회는 우리의 지적인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천재들의 생각을 흡수하되, 그들의 사유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남이 한 말을 맹무새처럼 반복하는 건 지루하기 짝이 없는 무용한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세르티양주는 “우리의 의무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며 “천재들은 신의 그림자일뿐이다. 그림자의 그림자가 되는 건 가없는 일이다”고 꼬집는다. 이어 “책을 읽은 뒤엔 나를 고무하는 저자를 닮은 사유가 아니라 나 자신을 빼다박은 생각을 세상 밖에 내놓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384쪽. 1만5000원

/김현정 기자 hj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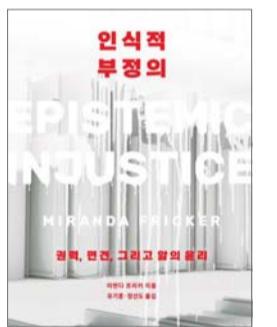
### 인식적 부정의

미란다 프리커 지음/유기훈, 정선도 옮김/오월의봄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을 찾아 헤매는 성소수자’, ‘불신에 둘러싸여 증언을 묵살당하는 흑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부당한 피해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언어를 오랫동안 갖추지 못해왔다. ‘편견’, ‘고정관념’, ‘차별’과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어들은 이들이 겪는 인식적 층위에서의 부정의(injustice)를 정확히 포착하지 못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언어의 부재로 피해자들은 부당한 경험을 선명하게 드러낼 기회를 박탈당한 채 침묵 속에 갇혀야 했다. 책은 인식적 부정의라는 개념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정치와 윤리가 깃들었는지, 부정의에 저항하는 인식적 실천이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368쪽. 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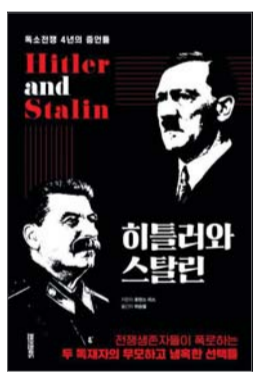
### 히틀러와 스탈린

로런스 리스 지음/허승철 옮김/페이퍼로드

강대국들의 현실 정치는 인류를 끝없는 타락으로 이끌었다.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고, 삶의 터전은 폐허가 됐다.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렸던 목격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겐 ‘전쟁 범죄자’, ‘죄악의 공조자’, ‘민족의 배신자’, ‘반동분자’, ‘무고한 희생자’, ‘강제수용소의 수감자’ 등의 수식어가 붙었다. 시대의 비극을 눈에 담은 생존자들은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와 스탈린의 죄악을 낱말이 까발렸다. 그들이 증

언한 전쟁의 본질은 간결하게 사악했다. 이웃을 배신하고, 약자를 유린하며, 소수자를 짓밟는 죄악의 시기였다. 30년간 세계대전을 연구한 저자는 1248개의 증언을 책에 담으며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전쟁이었다”고. 그 어떤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한들, 전쟁은 결코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다고 책은 강조한다.

888쪽. 3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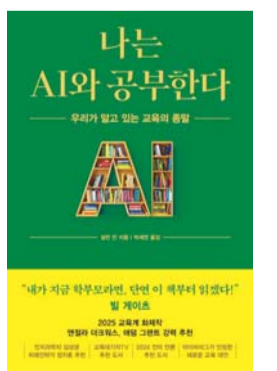


### 나는 AI와 공부한다

살만 칸 지음/박세연 옮김/알에이치코리아(AHK)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지나친 디지털 의존, 문해력 저하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교육의 동반자로 삼을지, 두려운 적대자로 남겨둘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책은 AI 시대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저자는 AI 융합형 교육 플랫폼 ‘칸

미고(Khanmigo)’를 개발한 살만 칸. 그는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인공지능은 교육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놓을 것”이라며 “AI는 인간의 지능과 잠재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학습 도구”라고 강조한다. 인공지능이 학생에게 질문을 던져 학습 참여를 독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AI는 교육의 종말이 아닌 새 시작이 될 것이라고 책은 이야기한다. 336쪽. 2만5000원



▲“지옥될것” 트럼프 강력경고에 가자 휴전... 우크라이나 /사진 뉴시스  
▲미국, 중국 AI 업체 등 무더기 제재... 첨단 반도체 추가 규제

▲美재무 후보자 “트럼프 ‘경제적 황금기’ 기회... 달러 지위 유지 중요”  
▲美싱크탱크 “尹제포 이후 韓 미지의 영역... 안정화에 집중을”

▲바이든 백악관서 고별 연설... 트럼프 겨냥 “권력 가두제 민주주의 위협”  
▲美국무 후보 “독재자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보람”... 韓핵무장 반대 시사



불닭볶음면  
美 알파세대  
사로잡았다  
L1



Life

유한양행  
10명 자녀 키워낸  
부부에 '유일한상'  
L4



# 따뜻함에 스타일까지... 포근한 겨울 책임지는 방한 필수템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유니클로 '히트텍'

일본 섬유회사와 개발한 기능성 발열 내의 인체 발생하는 열·수분 활용해 체온 유지 흡습 발열 기술 적용... 단열·보온 동시에

'추위 앞에 장사 없다'는 옛말처럼, 겨울철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 적절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 사람들은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다양한 아이템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유니클로의 히트텍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겨울철 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며, 체온 유지와 보온 효과를 극대화한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히트텍은 유니클로가 일본 섬유회사 도레이와 협력해 개발한 고기능성 발열 내의이다. 지난 2003년 처음 출시된 히트텍은 혁신적인 기술과 얇고 따뜻한 보온성을 바탕으로 겨울철 일반 면 내복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능성 내복으로 떠올랐다.

히트텍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과 수분을 활용해 체온을 유지하는 혁신적인 섬유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히트텍 소재에는 '흡습 발열 기술'이 적용돼, 피부에서 배출되는 수분이 섬유에 흡수되면 수분 분자가 움직이며 열 에너지를 생성하는 원리로 작동한다. 또한, 섬유 내부에 형성된 미세한 공기층이 발생한 열을 가두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열 역할을 하며 보온 효과를 높인다.

유니클로는 이후 지속적으로 히트텍 라인업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발열 내의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 2018년에는 히트텍에 기모 안감을 적용해 기존보다 1.5배 더 보온성이 있는 '히트텍 엑스트라 워밍', 2배 이상의 보온성을 제공하는 '히트텍 울트라 워밍'을 차례로 선보였다. 이 외에도 색상을 다양화하면서 디자인의 폭을 넓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는 여성 히트텍 라인업으로 '히트텍 캐시미어 블랜드(엑스트라 워밍)'를, 남성 히트



텍 라인업으로 '히트텍 엑스트라 워밍 코튼 모크넥 티셔츠'를 새롭게 선보였다.

당시 유니클로 관계자는 여성 히트텍 라인업 제품에 대해 "캐시미어 9% 혼방의 본 제품은 기본 히트텍보다 1.5배 더 따뜻하고, 기본 엑스트라 워밍 히트텍보다 30% 더 가벼운 점이 특징"이라며 "기존보다 길어진 소매와 적당한 비침이 있는 터틀넥 및 크루넥 두 가지 스타일로 디자인한 것에 더해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 히트텍 라인업 제품에 관해서는 "비치지 않는 원단을 사용해 단독 아이템으로 착용할 수 있다"며 "일상복뿐만 아니라 골프 등의 스포츠나 야외 활동에도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히트텍을 중심으로 한국 시장에 안착한 유니클로는 최근 들어 매출 상승을 이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한국지사 에프알엘코리아의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은 약 1조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상승했다. 영업이익 역시 1489억 원으로 같은 기간 5.4% 증가했다.

유니클로의 히트텍은 단순히 발열 내의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것을 넘어, 국내 발열 내의 시장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히트텍이 한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겨울철 기능성 내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자, 국내 제조 유통 일원화(SPA) 브랜드들도 발열 내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대표적으로 국내 SPA 브랜드인 스파오는 발열 내의 '워밍텍'을 선보이며, 한국 소비자들의 체형에 맞춘 디자인으로 히트텍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탑텐 역시 발열 내의 제품인 '온에어'를 선보이며 발열 내의 시장에 가세했다.

무신사 또한 자체 발열 내의 브랜드 '히텐다드'를 출시했다. 히텐다드는 기존 발열 내의 보다 두께를 줄이고 보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유니클로는 지난해 말 '히트텍 요원 양성소'라는 콘셉트로서 울 성수동에서 팝업 이벤트를 개최했다. 히트텍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연대기 전시와 함께 히트텍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니클로는 히트텍 제품을 중심



### 색상 다양화, 디자인 폭 넓혀 라인업 강화 히트텍 100만장 기부 등 글로벌 캠페인도 난민, 아동, 자연재해 피해자에 도움 손길

으로 한 글로벌 기부 캠페인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브랜드 출범 40주년을 맞아 히트텍 100만 장을 기부하는 '더 하트 오브 라이프웨어'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다.

캠페인은 유니클로 브랜드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됐으며, 라이프웨어 철학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지원 사업으로 이어졌다는 게 유니클로 측 설명이다.

실제로 유니클로는 도움이 필요한 난민과 아동, 자연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히트텍 기부 활동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5만장의 히트텍을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기부했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행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당시 유니클로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전국 16개 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독거노인 2만5000명에게 12억원 상당의 히트텍 5만장을 전달한다는 추가 계획도 밝혔다.

유니클로 모기업 패스트리테일링의 야나이 코지 수석 경영 임원은 "유니클로의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인 '더 하트 오브 라이프웨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한다"며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더 편안한 일상을 사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 "지역경제 살리자"... 정부, 연초 지자체 축제·행사 홍보 총력 /사진 뉴시스  
▲ LA 산불에 할리우드 시상식 연기... "수익금 기부하라"

▲ 국가유산청, 광복 80주년 환수 문화유산 4종 기념 우표 발행  
▲ BTS부터 오웬까지... 국립민속박물관 '한류문화사전' 발간

▲ 서울시, 청계천 반려견 출입 시범 사업 6월까지 연장  
▲ 표류하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중앙선관위 위탁도 무산